

1

문학의 빛깔

▶ 01 서정 갈래의 이해

빠르게 정리하는 시험 포인트 / 06
우리학교 필수기출 / 08

▶ 02 서사 갈래의 이해

빠르게 정리하는 시험 포인트 / 10
우리학교 필수기출 / 13

▶ 03 극 갈래의 이해

빠르게 정리하는 시험 포인트 / 18
우리학교 필수기출 / 20

▶ 04 교술 갈래의 이해

빠르게 정리하는 시험 포인트 / 24
우리학교 필수기출 / 26

▶ * 대단원 최종실전 1회 / 30

* 대단원 최종실전 2회 / 40

이 서정 갈래의 이해

슬픔이 기쁨에게 _ 정호승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교훈적, 비판적, 의지적, 상징적
화자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고 이웃의 죽음에 대해서까지 냉담한 '너'에게 '슬픔'과 '기다림'을 주고자 하는 사람		
주제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사는 삶의 추구		
특징	①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② 특정 음운, 어미, 음보 등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③ '슬픔'과 '기쁨'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의인화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구성	1~6행 이기적인 '너'에게 슬픔을 주고자 함.	7~13행 무관심한 '너'에게 기다림을 주고자 함.	14~19행 슬픔의 힘을 이야기하며 '너'와 함께 걸어가고자 함.

포인트 1

화자와 청자의 특징

화자: '나'(슬픔)	청자: '너'(기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된 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사랑보다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 평등한 얼굴을 가진. • '너'에게 '슬픔'과 '기다림'을 주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함. • 타인의 고통에 개의치 않음. • 무관심한 사랑을 지님. • 슬픔의 가치를 모르고 있음.

포인트 2

시어와 시구의 의미 ★★

겨울밤 거리	현실적 고난, 힘겨운 삶
할머니, 동사자	소외된 이웃, 사회적 약자
가마니 한 장	소외된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
기다림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소외된 이웃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시간)
함박눈	약자에게는 고통과 슬픔을, 강자에게는 행복을 주는 존재
봄눈	약자를 감싸는 존재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사랑보다 소외된 약자의 아픔을 함께하는 이타적 슬픔이 더 가치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냄.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너'가 슬픔의 가치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나'의 의지가 드러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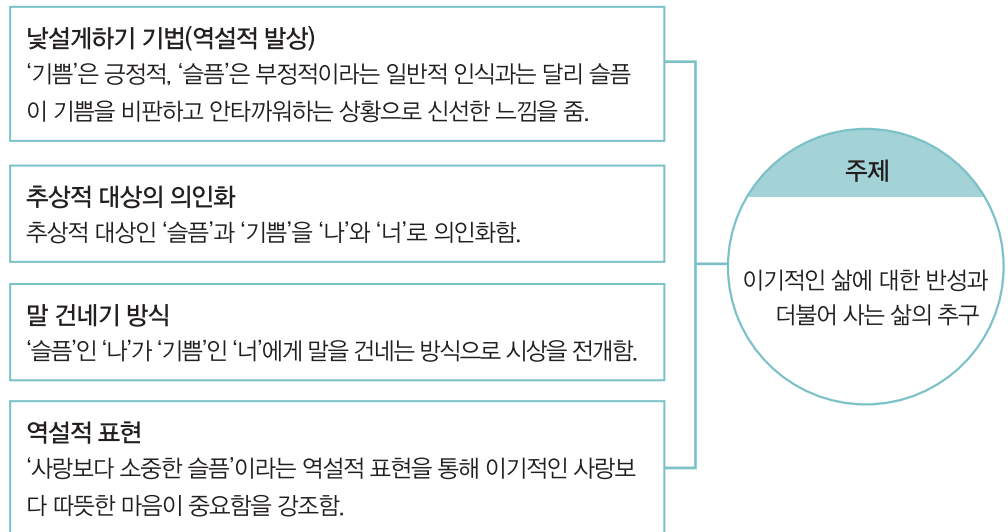
포인트 3

운율 형성 요소

나는 이제 / 너에게도 / 슬픔을 / 주겠다. 사랑보다 / 소중한 / 슬픔을 / 주겠다.	4음보의 반복
•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등	어미 '-겠다'의 반복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L' 음운의 반복

포인트 4

주제 형상화 방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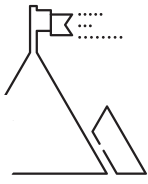


포인트 5

서정 갈래로서의 <슬픔이 기쁨에게> ★

서정 갈래의 특징	<슬픔이 기쁨에게>
가상의 시인인 시적 화자가 존재함.	'슬픔'을 상징하는 '나'라는 시적 화자가 등장함.
사전적 의미가 아닌 함축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사용함.	'함박눈', '봄눈' 등의 시어가 사전적 의미가 아닌 함축적 의미를 전달함.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함.	의인법, 역설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함.
운율이 있는 언어를 사용함.	4음보, 어미 '-겠다', 'L' 음운의 반복을 통하여 운율을 형성함.

우리학교 필수기출



[01~07]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 ㉠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 ㉡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 ㉢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 ㉣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걸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 ㉤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포인트 check!

- 1 이 시의 화자는 □□이고, 청자는 □□이다.
- 2 슬픔과 기쁨의 일상적 의미와는 다른 □□□□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3 슬픔과 기쁨이라는 □□□□ 개념을 □□□□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4 슬픔과 기쁨이라는 □□적인 시어를 통해 화자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5 특정 음보, 어미, 음운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을 형성하고 있다.

1 슬픔, 기쁨 2 역설적 3 추상적, 의인화 4 대립 5 운율

0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이중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애상적 어조를 통해 비극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영탄적 진술을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⑤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2 <보기>는 시인이 이 시를 쓰기 위해 구상한 창작 메모이다. 이 시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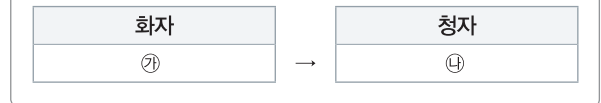
보기

- 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 ㄴ. 시상의 극적 전환을 통해 분위기를 반전한다.
- ㄷ. 대립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한다.
- ㄹ. 특정 음운과 음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 ㅁ. 연쇄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의 의미를 강조한다.

학습활동 응용

03 <보기>는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 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① ㉠은 '나'로, 슬픔에 해당한다.
- ② ㉡은 '너'로, 기쁨에 해당한다.
- ③ ㉠은 ㉡와 달리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한다.
- ④ ㉡은 ㉠와 달리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다.
- ⑤ 시인은 ㉠와 ㉡ 모두 기쁨을 버리고 슬픔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여긴다.

04 다음 <학습 활동>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활동 목표: 시에 쓰인 어구의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파악해 보자.

활동 1. 시상을 고려하여 상징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찾아보자.

활동 2. 위의 어구들이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 적어 보자.

활동 3. 위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시어들의 상징적 의미를 해석해 보자.

활동 1 탐구 결과	활동 2 탐구 결과	활동 3 탐구 결과
할머니	추운 날 굴을 팔.	㉠
동사자	얼어 죽음.	㉡
가마니 한 장	동사자를 덮음.	㉢
함박눈	이 세상에 내림.	㉣
봄눈	보리밭의 싹을 틔움.	㉤

- ① ㉠: ‘할머니’는 추운 겨울날 굴을 팔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뜻한다.
- ② ㉡: ‘동사자’는 추운 겨울날 얼어 죽는다는 점에서 ㉠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뜻한다.
- ③ ㉢: ‘가마니 한 장’은 ‘동사자’ 위에 덮인 것으로,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을 뜻한다.
- ④ ㉣: ‘함박눈’은 많이 내리는 눈이라는 점에서 할머니와 동사자에게 위로를 주는 존재를 뜻한다.
- ⑤ ㉤: ‘봄눈’은 보리밭을 덮어 따뜻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소외된 약자를 감싸는 존재를 뜻한다.

0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나’가 어려운 상황에서 ‘너’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이웃의 고통을 외면한 ‘너’의 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 타인의 슬픔에 공감할 줄 모르는 ‘너’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
- ④ ㉣: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나’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⑤ ㉤: ‘너’가 슬픔의 가치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나’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06 <보기>를 바탕으로 이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시는 기쁨과 슬픔에 대한 독특한 발상과 표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모든 진정한 사랑에는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랑은 슬픔을 어머니로 하고 눈물을 아버지로 한다. 사랑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바로 고통 때문이다.”라는 시인의 말처럼 시인은 이 시를 통해 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비판하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 교훈적 주제를 전하고 있다.

- ① 화자는 기쁨을 부정적인 것으로, 슬픔을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② ‘굴 값을 깎으며 기뻐하던 너’는 이기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 주는 존재이다.
- ③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는 모습은 고통에 처해 있는 존재들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④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에는 진정한 사랑에는 슬픔이 있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화자의 의도가 드러나 있다.
- ⑤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에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에게 기쁨을 주려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07 <보기>를 참고하여 이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학 작품은 언어라는 형식, 가치 있는 주제라는 내용, 형상화된 표현이라는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다. 문학을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은 언어 형식과 형상화된 표현을 포괄하여 형식이라 한 것이다.

문학의 각 구성 요소들은 서로 긴밀하게 결합하여 하나의 문학 작품 속에 녹아 있는데, 이를 유기적 관계라고 한다.

- ① 화자의 관조적 태도를 통해 부정적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시라는 형식을 통해 시인의 생각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③ 함축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사용하여 시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④ 의인법, 역설법 등의 표현 방식이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⑤ ‘슬픔의 가치와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이라는 가치 있는 주제를 담고 있다.

02 서사 갈래의 이해

달밤 _ 이태준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성격	서정적, 애상적											
배경	1930년대 서울 성북동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제재	각박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한 인물의 삶	주제	세상으로부터 밀려난 못난이 '황수건'의 삶에 대한 연민											
특징	①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다양한 일화를 나열한 에피소드식 구성을 취함. ② '달밤'이라는 배경을 통해 인물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면서 서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여운을 줌. ③ 세밀한 묘사를 통해 사건과 인물을 선명하게 드러냄.													
구성	<table border="1"> <thead> <tr> <th>발단</th> <th>전개</th> <th>위기</th> <th>절정</th> <th>결말</th> </tr> </thead> <tbody> <tr> <td>'나'는 성북동으로 이사 와서 우둔하지만 천진한 황수건을 만남.</td> <td>'나'는 황수건이 신문 원배달원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알게 됨.</td> <td>'나'는 신문 보조 배달원 자리에서 쫓겨난 황수건에게 장사 밀전을 대 줌.</td> <td>황수건이 포도를 훔쳐 '나'에게 주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어 끌려감.</td> <td>'나'는 달밤에 담배를 피우며 노래를 부르는 황수건을 목격함.</td> </tr> </tbody> </table>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나'는 성북동으로 이사 와서 우둔하지만 천진한 황수건을 만남.	'나'는 황수건이 신문 원배달원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알게 됨.	'나'는 신문 보조 배달원 자리에서 쫓겨난 황수건에게 장사 밀전을 대 줌.	황수건이 포도를 훔쳐 '나'에게 주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어 끌려감.	'나'는 달밤에 담배를 피우며 노래를 부르는 황수건을 목격함.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나'는 성북동으로 이사 와서 우둔하지만 천진한 황수건을 만남.	'나'는 황수건이 신문 원배달원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알게 됨.	'나'는 신문 보조 배달원 자리에서 쫓겨난 황수건에게 장사 밀전을 대 줌.	황수건이 포도를 훔쳐 '나'에게 주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어 끌려감.	'나'는 달밤에 담배를 피우며 노래를 부르는 황수건을 목격함.										

포인트 1

등장인물의 특성 ★

황수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열심히 이야기함. •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기를 대단히 즐김. • 새로 온 삼산학교 급사의 근력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 대문에 큰 돌멩이를 굴러다 놓음. • 신문 원배달원이 되지 못하고, 아내는 도망갔으며, 참외 장사도 실패함. • 포도를 훔쳐 '나'에게 가져다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사람들에게 반편, 못난이, 웃음거리 취급을 받지만, 착하고 순박함. • 사회에서 소외당하여 불우한 처지에 놓임. • '나'의 도움을 잊지 않고 은혜에 고마워할 줄 아는 따뜻한 품성을 지님.

포인트 2

서술자의 특성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안에 주변 인물로 등장하여 주인공인 황수건과 겪은 일화를 전달함. • 황수건과 대화하는 것을 진심으로 즐기며 성의 있게 이야기를 나눔. • 대가를 바라지 않고 황수건을 도와줌.
황수건을 긍정적, 호의적 태도로 바라봄.	

포인트 3

서술자의 태도 ★

황수건이 원배달원이 되지 못했을 때	황수건이 훔쳐 온 포도를 받았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섭섭하고 마음 아파함. • 세상의 야박함을 원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근한 순정의 열매'로 생각함. • 오래 바라보며 맛을 음미하며 아껴 먹음.



작가의 의도
황수건에 대한 '나'의 태도를 통해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한 연민과 동정을 드러냄.

포인트 4

소재의 상징적 의미

큰 돌맹이	사건의 해결책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황수건의 어리석은 면모를 부각시킴.
돈 삼 원	황수건에 대한 '나'의 애정과 연민이 드러남.
참외 세 개, 포도	'나'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한 황수건의 성의를 나타냄.
일본 노래	노래 가사가 삶에 지친 듯한 황수건의 심리를 대변함.
담배	황수건의 답답한 삶을 상징함.

포인트 5

배경의 역할 ★★

공간적 배경	<p>성북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대문' 안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당시에 시골로 여기던 지역임. • 1930년대 가난한 조선인들이 모여 살던 곳임. <p>⇒ 식민지 시대의 그늘과 변두리 인생의 고달픔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공간</p>
	<p>1930년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 강점기로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경제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웠던 시대임. • 황수건처럼 모자라고 어수룩한 사람은 소외당하고 배척받기 쉬움. <p>⇒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인간적 정이 사라져 가는 각박한 세태를 꼬집음.</p>
시간적 배경	

포인트 6

결말의 효과 ★★

<p>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이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푹푹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수건이 처한 불우한 상황을 강조함. • 평화롭고 아름다운 느낌을 통해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함. • 황수건에 대한 '나'의 연민을 돋보이게 함. • 독자들이 서술자가 느끼는 정서에 공감하게 하며 여운을 줌.
---	---	--



황수건이 처한 불우한 상황과 비극적인 결말을 서정적 분위기로 정화시킴.

포인트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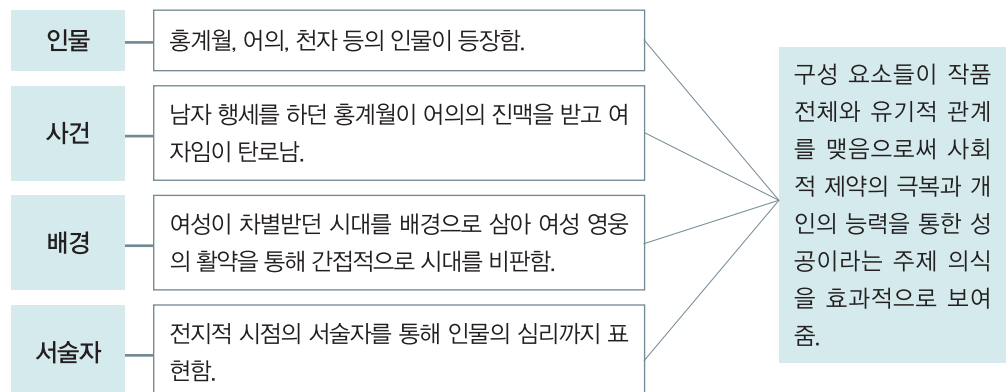
소설의 시점

서술자의 위치	소설의 시점	특징
작품 안	1인칭 주인공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설 속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시점 인물의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독자들에게 친근감과 신뢰감을 줌. '나'의 입장에서만 서술하므로 주관적이며 다른 인물의 심리를 들여다 볼 수 없음.
	1인칭 관찰자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설 속 부수적 인물인 '나'가 주인공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시점 주인공의 내면을 직접 드러내지 않아 긴장감과 신비감을 줌. 관찰자인 '나'의 눈에 비친 것만 서술하므로 서술의 내용이 제한적이지만 독자들이 서술 내용을 근거로 인물의 심리나 성격, 사건 전개 과정을 추측하는 등 소설 해석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작품 밖	작가 관찰자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설 밖의 서술자가 객관적 태도로 관찰한 사실을 전달하는 시점 서술 내용이 제한적이지만 서술자가 일체의 해석이나 평가를 내리지 않으므로 독자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
	전지적 작가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설 밖의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 전개를 모두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시점 작가의 사상과 인생관이 직접 드러나기 때문에 독자의 상상력이 제한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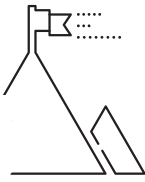
포인트 8

<홍계월전>에 드러난 서사 갈래의 특징 활동속작품

갈래	고전 소설, 국문 소설, 여성 영웅 소설		
성격	전기적, 우연적, 영웅적, 일대기적		
배경	중국 명나라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제재	홍계월의 수난과 극복		
주제	홍계월의 수난 및 영웅적 기상과 재주를 통한 극복,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		
특징	①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지님. ② 남성보다 우월한 능력을 지닌 여성을 영웅으로 설정함. ③ 여성의 봉건적 역할을 거부하는 근대적 가치관이 담겨 있음.		



우리학교 필수기출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성북동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엿새 되었을까, 그날 밤 나는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 던지고 누워 새삼스럽게,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 / 하였다.

뭉 바깥이 퍽퍽한 걸 처음 보고 시냇물 소리와 썩 하는 술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곧 못난이란 것이 드러났다.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들보다 더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란 느낌을 풍겨 주었다.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야 없겠지만 대처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선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나와 다니는 때문인지,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서 잘 눈에 띈다. ㉠그리고 또 흔히 그는 태고 때 사람처럼 그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런 눈을 가지고, 자기 동리에 처음 들어서는 손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취를 돋워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날 밤 황수건이는 열 시나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어두운 마당에서 껍 지르는 소리로,

“아, 이 댁이 문안서…….”

하면서 들어섰다. 잡담 제하고 큰일이나 난 사람처럼 건넌방 문앞으로 달려들더니,

“저, 저…… 문안 서대문 거리라나요, 어디선가 나오신 댁입쇼?”

한다. ㉡보니 합비는 안 입었으되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 배달부였다.

“그렇소. 신문이오?”

“아, 그런 걸 사흘이나 저, 저 건너 쪽에만 가 찾았습쇼. 제기…….”

하더니 신문을 방에 들여드리며,

㉢“그런뎡쇼, 왜 이렇게 꾀꼬만 집을 사구 와 겠쇼? 아, 내가 알았더라면 이 아래 큰 개와집도 많은걸입쇼…….”

한다. 하 말이 황당스러워 유심히 그의 생김을 내다보니, 눈에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뺨뺨 짙은 머리되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으로 골이 크다. 그런 데다 옆으로 보니 짱구 대가리다.

“그렇소? 아무튼 집 찾느라고 수고했쇼.”

하니 그는 큰 눈과 큰 입이 일시에 히죽거리며,

“뎡입쇼, 이게 제 업인뎡쇼.”

하고 날래 물러서지 않고 목을 길게 빼어 방 안을 살핀다. 그러더니 묻지도 않는데,

“저는입쇼, 이 동네 사는 황수건이라 합니다…….”

하고 인사를 붙인다. 나도 깎듯이 내 성명을 댔다. 그는 또 싱글벙글하면서,

“댁엔 개가 없구먼입쇼?” / 한다.

“아직 없쇼.” / 하니,

“개 그까짓 거 두지 마십쇼.” / 한다.

“왜 그렇소?” / 물으니 그는 얼른 대답하는 말이,

“신문 보는 집엔입쇼, 개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한다. 이것 재미있는 말이다. 하고 나는,

“왜 그렇소?” / 하고 또 물었다.

“아, 이 뒷동네 은행소에 댕기는 집엔입쇼, 망아지만 한 개가 있는뎡쇼, 아, 신문을 배달할 수가 있어얍쇼.”

“왜?” / “막 깨물라고 텨비는걸입쇼.”

한다. 말 같지 않아서 나는 웃기만 하니 그는 더욱 신을 낸다.

㉣“그놈의 개, 그저 한번, 양뎡을 맥어 대야 할 텐데…….”

하면서 주먹을 부르는데 보니, 손과 팔목은 머리에 비겨 반비레로 작고 가느다랗다.

“어서 곤할 텐데 가 자시오.”

하니 ㉤그는 마지못해 물러서며,

“선생님, 참 이 선생님 편안히 주뎡쇼. 저희 집은 여기서 얼마 안 되는걸입쇼.” / 하더니 돌아갔다.

- 이태준, <달밤>

포인트 check!

- 1 이 소설의 중심인물은 서술자인 ‘’와 주인공 ‘’이다.
- 2 ‘나’는 첫 만남에서 황수건이 임을 알게 되었다.
- 3 황수건은 신문 배달부로,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1 나, 황수건 2 못난이 3 이야기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1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2 동시에 벌어지는 두 사건을 병렬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3 현재형 시제를 활용하여 사건을 생동감 있게 그려 내고 있다.
- 4 여러 인물의 경험을 대비하여 사건의 전모를 드러내고 있다.
- 5 어린 시절의 서술자와 성인이 된 서술자의 시선이 함께 드러나 있다.

0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황수건은 ‘나’가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 ② ‘나’는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황수건을 만났다.
- ③ ‘나’는 황수건을 만난 날 그가 못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 ④ ‘나’는 황수건을 만나고 난 후 성북동이 시골이란 느낌을 가졌다.
- ⑤ 황수건은 신문을 배달하는 집의 망아지가 덤벼서 곤혹을 치렀다.

03 윗글에서 <보기>의 ㉠을 사용하여 황수건의 특징을 드러낸 부분을 두 군데 찾아 쓰시오.

→ 보기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이나 특징을 제시하는 방법에는 서술자가 인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방법과 인물의 대화, ㉠외양 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0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황수건에 대한 ‘나’의 긍정적 시선이 나타나 있다.
- ② ㉡: 황수건의 직업이 신문 배달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 ‘나’를 비판하기 좋아하는 황수건의 성격이 드러나 있다.
- ④ ㉣: 신문 배달을 방해하는 개에 대한 황수건의 심리가 나타나 있다.
- ⑤ ㉤: ‘나’와 이야기를 더 나누지 못해 아쉬워하는 황수건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05 황수건이 ‘나’와의 첫 만남에서 ‘나’에게 제안하고 있는 내용이 드러난 문장을 찾아 쓰시오.

[06~0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는 이튿날 저녁, 집을 알고 오는데도 아홉 시가 지나서야, “신문 배달해 왔습니다.” 하고 소리를 치며 들어섰다. “오늘은 왜 늦었소?” 물으니, “자연 그럽죠.” 하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자기는 워낙 이 아래 있는 삼산학교에서 일을 보다 어떤 선생하고 뜻이 덜 맞아 나왔다는 것, 지금은 신문 배달을 하나 원배달이 아니라 보조 배달이라는 것, 저희 집엔 양친과 형님 내외와 조카 하나와 저희 내외까지 식구가 일곱이란 것, 저희 아버지와 저희 형님의 이름은 무엇무엇이며, 자기 이름은 황가인 데다가 목숨 수 자하고 세울 건 자로 황수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랑 수건이라고 놀려서 성북동에서는 가가호호에서 노랑 수건 하면 다 자긴 줄 알리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다가 이날도,

“어서 그만 다른 집에도 신문을 갖다 줘야 하지 않소?” 하니깐 그때서야 마지못해 나갔다. ㉢우리 집에서는 그까짓 반편과 무얼 대꾸를 해 가지고 그려느냐 하되, ㉣나는 그와 지껄이기가 좋았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열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고, 그와는 아무리 오래 지껄이고 나도 웃음밖에 ㉤는 남는 것이 없어 기분이 거뜨해지는 것도 좋았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중만 아니면 한참씩 그의 말을 받아 주었다.

어떤 날은 서로 말이 막히기도 했다. 대답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막혔다. 그러나 그는 늘 나보다 빠르게 이야깃거리를 잘 찾아냈다. 오뉴월인데도 ‘깽고기를 잘 먹느냐?’고도 묻고, ‘양복은 저고리를 먼저 입느냐 바지를 먼저 입느냐?’고도 묻고, ‘소와 말과 싸움을 붙이면 어느 것이 이기겠느냐?’는 등, 아무튼 그가 얘깃거리를 취재하는 방면은 기상천외로 여간 범위가 넓지 않은 데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다. 하루는 나는 ‘평생 소원이 무엇이나?’고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그까짓 것쯤 얼른 대답하기는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면서 평생 소원은 자기도 원배달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남이 혼자 배달하기 힘들어서 한 이십 부 떼어 주는 것을 배달하고 월급이라고 원배달에게서 한 삼 원 받는 터라, 월급을 이십여 원을 받고 신문사 옷을 입고 방울을 차고 다니는 원배달이 제일 부럽노라 하였다. 그리고 방울만 차면 자기도 뛰어다니며 빨리 돌 뿐 아니라 그 은행소에 다니는 집 개도 조금도 무서울 것이 없겠노라 하였다.

- 이태준. <달밤>

포인트 check!

- 1 황수건의 삶에 대한 정보를 □□□으로 제시하고 있다.
- 2 '나'는 황수건과 함께 하는 시간을 좋아하며 그를 □□처럼 생각한다.
- 3 황수건은 신문 보조 배달원으로 □□□이 되는 것이 소원이다.

1 요약적 2 친구 3 원배달

06 뒷글에서 알 수 있는 황수건에 대한 사실로 적절한 것은?

- 1 그의 별명은 노랑 수건이다.
- 2 그에게는 자식 두 명이 있다.
- 3 그는 그동안 원배달로 일해 왔다.
- 4 그는 늘 제시간에 신문을 배달했다.
- 5 그는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07 [A]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1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 2 동일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서술하여 사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3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4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주관적으로 전달하여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 5 인물에 대한 정보를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인물의 상황을 알려 주고 있다.

08 <보기>를 참고하여 [B]에서 알 수 있는 황수건에 대한 '나'의 태도를 쓰시오.

보기

인물의 태도란 인물이 당면한 현실 상황 또는 대상에 대하여 나타내는 반응 및 자세를 뜻한다. 인물이 지니는 태도의 유형에는 사건이나 대상을 긍정적,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태도, 사건이나 대상을 부정적, 냉소적, 비판적, 비관적, 회의적으로 평가하는 태도, 주관을 배제하고 사건이나 대상을 있는 그대로 담당하게 받아들이는 객관적 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0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1 ㉠은 ㉡의 반응에 불쾌해한다.
- 2 ㉡은 ㉢과 달리 ㉠을 조롱한다.
- 3 ㉢은 ㉡과 함께 ㉠을 무시한다.
- 4 ㉢은 ㉠과의 대화를 좋아하고 있다.
- 5 ㉢은 ㉠, ㉡, ㉢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고 있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하루는 나는 거의 그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
 ㉠“이 선생님 께쇼?”
 하고 수건이가 찾아왔다. 반가웠다.
 “선생님, 요즘 신문이 거르지 않고 잘 옵쇼?”
 하고 그는 배달 감독이나 되어 온 듯이 묻는다.
 “잘 오우. 왜 그러우?” / 한즉 또,
 “늦지도 않굽쇼, 일즉이 제때마다 꼬옥 옵쇼?” / 한다.
 “당신이 돌릴 때보다 세 시간은 일찍이 오고 날마다 꼭꼭 잘 오우.”
 하니 그는 머리를 벼적벼적 긁으면서,
 ㉡“하루라도 거르기만 해라, 신문사에 가서 대뜸 일러바치지…….”
 하고 그 빈약한 주먹을 부르낸다.
 “그런뎁쇼, 선생님?”
 “왜 그러우?”
 “삼산학교에 말씀예요, 그 제 대신 들어온 급사가 저보다 근력이 세게 생겼습쇼?”
 “나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쇼.”
 하니 ㉢그는 은근한 말소리로 히죽거리며,
 “제가 거길 또 들어가 볼라굽쇼, 운동을 합쇼.” / 한다.
 “어떻게 운동을 하오?”
 “그까짓 거 날마당 사무실로 갑쇼, 다시 써 달라고 졸라 뎁쇼. 아, 그랬더니 새 급사란 녀석이 저보다 크기도 무척 큰뎁쇼, 이 녀석이 막 불근뎁니다그러. 그래 한번 씹을 해야 할 턱뎁쇼, 그 녀석이 근력이 얼마나 센지 알아야 뎁버들 턱뎁쇼, 허…….”
 “그렇지, 멋모르고 대들었다 매만 맞지.”
 하니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또 은근한 말을 한다.
 “그래쎄쇼, ㉣엇저녁엔 큰 돌멩이 하나를 굴러다 삼산학교 대문에다 났습쇼. 그리구 오늘 아침에 가 보니깐 없어졌는뎁쇼, 이 녀석이 나처럼 억지루 굴러다 버렸는지, 뻥쩍 들어다 버렸는지 그만 못 봤거든입쇼, 제길…….”
 하고 머리를 긁는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얼 생각한 듯 손뼉을 탁 치더니,

㉔ “그런데요, 제가 온 건입쇼, 맥에선 우두를 넣지 마시라구 왔습쇼.” / 한다.

“우두를 왜 넣지 말란 말이오?” / 한즉,

“요즘 마마가 다닌다구 모두 우두들을 넣는데요, 우두를 넣으면 사람이 근력이 없어지는 법인데요.”

하고 자기 팔을 걷어 올려 우두 자리를 보이면서,

“이걸 봅쇼, 저두 우두를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근력이 줄었습쇼.” / 한다.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준다고 누가 그러니까?”

물으니 그는 싱글거리며,

㉕ “아, 내가 생각해 냈습쇼.” / 한다.

“왜 그렇소?” / 하고 캐니,

㉖ “뭘…… 저 아래 윤금보라고 있는데 기운이 장산데요. 아 삼산학교 그 녀석두 우두만 넣었다면 그까짓 것 무서울 것 없는데요, 그걸 모르겠거든입쇼…….”

한다. 나는,

“그렇게 용한 생각을 하고 일러 주러 왔으니 아주 고맙소.”

하였다. 그는 좋아서 벅긋거리며 머리를 긁었다.

- 이태준, <달밤>

포인트 check!

- 1 황수건은 삼산학교의 로 다시 들어가려 하고 있다.
- 2 황수건은 새로 들어온 급사의 근력을 알아보기 위해 삼산학교 때문에 큰 를 굴러다 놓았다.
- 3 황수건은 를 맞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 주기 위해 ‘나’를 찾아왔다.
- 4 ‘나’는 황수건이 하는 엉뚱한 이야기에 적인 태도로 반응한다.

1] 급사 2] 돌맹이 3] 우두 4] 호의(긍정)

10 ㉔에서 알 수 있는 황수건의 심리를 쓰시오.

11 <보기>는 뒷글을 읽고 수업 중 선생님이 한 질문이다.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한 말을 쓰시오.

보기
 선생님: 인물이 ㉔과 같이 행동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학생: _____

12 ㉔~㉖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황수건에 대한 ‘나’의 호감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다.
- ② ㉕: 황수건의 행동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㉖: 황수건이 ‘나’의 집을 방문한 목적이 드러나 있다.
- ④ ㉔: 우두 접종과 관련한 사실이 황수건의 자의적 해석임을 알 수 있다.
- ⑤ ㉖: ‘나’의 물음에 동문서답하는 황수건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13 <보기>의 ㉔~㉖ 중, 뒷글의 서술자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보기
 소설에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인물을 ‘서술자’라고 한다. 서술자는 ㉔ 이야기 속의 인물일 수도 있고, ㉕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㉖ 이야기 속 서술자가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느냐, ㉔ 주변 인물이 되어 사건을 관찰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사건도 달리 전달될 수 있다.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래 삼산학교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소?”

물으니 그는,

“돈만 있으면 그까짓 저 누가 고쓰카이 노릇을 합쇼? 밀천만 있으면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장사를 할 텃데요쇼.”

한다.

“무슨 장사?”

“아, 방학될 때까지 차미 장사도 하굽쇼, 가을부터는 군밤 장사, 왜떡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 합쇼. ㉔ 삼산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겠쇼, 저를 선생들보다 낮게 치는 텃쇼쇼.”

한다.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주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㉔ 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났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굽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일썬하지 않았다.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밀천만 까

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다는 것이었다.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병긋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죠.”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째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떡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 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 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 주었다. 포도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어제다. 문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길을 깎 듯하였다.

그런데 포도원끼를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맑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 케…… 와 나…… 미다카 다메이…… 키…… 카…….”
를 부르며 큰길에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알은체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획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이 이상은 위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펍펍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 이태준, <달밤>

포인트 check!

- 1 ‘□□ 세 개와 ‘□□’는 황수건이 ‘나’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가져온 것이다.
- 2 ‘□□ □□’는 삶에 지친 황수건의 심리를 대변하는 소재이다.
- 3 윗글의 배경인 □□은 주인공의 불우한 상황과 비극적인 결말을 심화시키지 않고 □□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독자에게 여운을 남긴다.

1 참외, 포도 2 일본 노래 3 달밤, 서정

학습활동 응용

1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작가가 이 소설을 쓴 1930년대는 일제 강점기로, 당시 조선인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일본인이 받는 임금과 조선인이 받는 임금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실업자와 결인, 궁민의 숫자는 빠르게 늘어 갔다. 당시에는 사대문 안쪽만을 ‘서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소설의 배경인 ‘성북동’처럼 사대문 밖의 공간은 ‘시골’로 간주되는 변두리로, 가난한 조선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었다.

- 1 황수건은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인물이다.
- 2 일본인에 의해 착취당하는 조선인의 모습이 황수건을 통해 드러나 있다.
- 3 ‘나’와 같이 사대문 안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조선인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4 성북동은 경제적으로 소외당한 인물이 정착한 곳으로, ‘나’와 황수건은 소외당한 인물을 상징한다.
- 5 1930년대 성북동은 가난한 조선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황수건과 같은 변두리 인생의 고달픔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 황수건의 허풍스러운 성격이 드러나 있다.
- 2 ㉡: 황수건의 천진난만한 성격이 드러나 있다.
- 3 ㉢: ‘나’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하는 황수건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 4 ㉣: 황수건과 마주치기 싫어하는 ‘나’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 5 ㉤: 황수건의 비감한 마음이 드러나 있다.

학습활동 응용

16 <보기>의 ㉠~㉤에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보기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은 시간적 배경으로,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의 비극적 이야기를 (㉡)적인 분위기로 이끌어 소설이 지나치게 애상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막아 주면서도, 독자들에게 깊은 (㉢)을 준다. 또한 황수건을 향한 서술자의 연민의 감정을 달에 (㉣)하여 서정적 분위기를 더해 주고 있다.

03 극 갈래의 이해

파수꾼 _ 이강백

갈래	희곡, 단막극, 풍자극	성격	우화적, 현실 풍자적, 교훈적, 상징적		
배경	어느 황야에 있는 망루	제재	권력의 위선, 이리 떼에 관한 진실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실을 향한 열망과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비극 무비판적인 권력 추종에 의해 잘못된 권력이 강화되는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징적인 소재와 인물을 등장시켜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② 우화적 기법을 사용하여 작가의 의도를 작품의 이면에 숨김. 				
구성	<p>발단</p> <p>파수꾼 '다'는 마을을 위협하는 이리 떼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됨.</p>	<p>전개</p> <p>촌장은 이리 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파수꾼 '다'의 말을 인정함.</p>	<p>절정</p> <p>파수꾼 '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려고 하지만, 촌장은 이를 내일 알려지고 설득함.</p>	<p>하강</p> <p>파수꾼 '다'는 촌장에게 회유당하여 마을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함.</p>	<p>대단원</p> <p>파수꾼 '다'는 거짓말을 한 뒤 결국 망루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파수꾼 '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됨.</p>

포인트 1

진실에 대한 등장인물의 태도

진실	
이리 떼는 존재하지 않고 평화로운 힌 구름만 흘러가고 있음.	
↓	
촌장	진실을 은폐하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장하여 마을을 통제하려고 함.
파수꾼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짓을 진실이라고 굳게 믿음. 촌장의 말을 전적으로 따름.
파수꾼 '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실을 밝히려려고 촌장에 맞섬. 촌장의 위협과 회유에 굴복하여 거짓의 편에 서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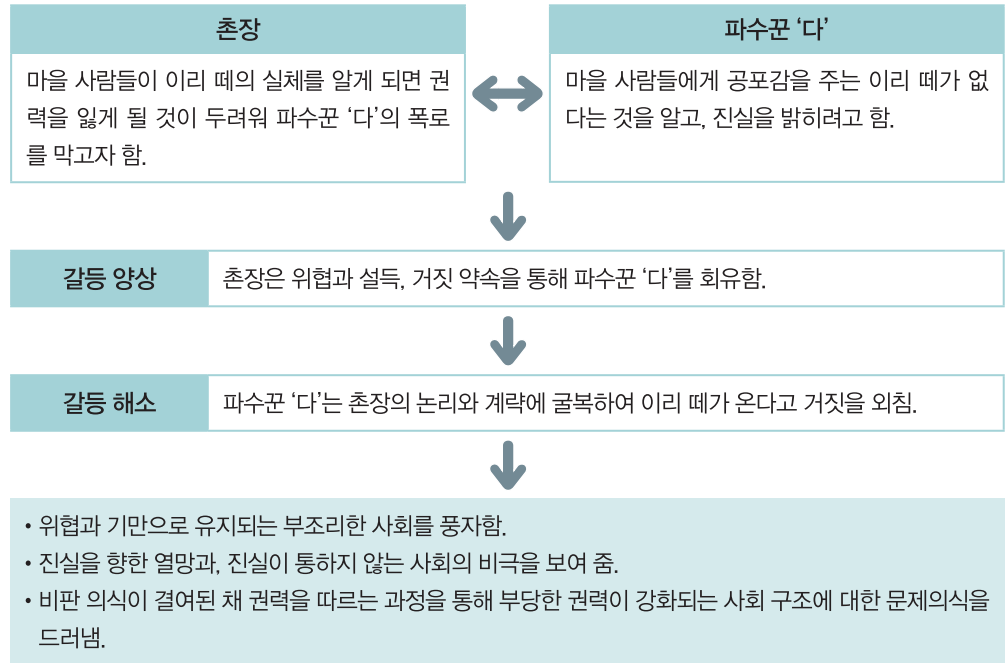
포인트 2

등장인물의 상징적 의미 ★

촌장	지배 이념을 생산하여 민중을 통제하려는 권력자
파수꾼 '가', '나'	지배 이념에 대한 비판 의식 없이 이를 확산, 유지해 나가는 권력의 하수인
파수꾼 '다'	지배 이념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진실을 밝히려 하지만 잘못된 권력의 논리를 수용하게 되는 나약한 지식인
마을 사람들	지배 이념에 의해 통제당하는 다수의 민중

포인트 3

등장인물 간의 갈등 양상 ★★



포인트 4

소재의 상징적 의미 ★★

이리 떼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 주기 위해 만들어 낸 허상이자 가상의 적으로, 권력 유지를 위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수단
흰 구름	아름답고 평화로운 현실이자 밝혀야 할 진실
양철 북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도구
딸기	부당한 권력으로 얻은 대가, 권력을 따를 때 누릴 수 있는 특권
도끼	권력자가 진실을 밝히려는 지식인에게 겁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

포인트 5

<마이 리틀 히어로>에 나타난 시나리오의 특징 활동속작품

갈래	시나리오	성격	현실 비판적, 교훈적
주제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에 대한 비판		
특징	① 세상의 편견에 맞서 끝까지 도전하는 스승과 제자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줌. ②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편견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냄.		

배우	영화 상영을 전제로 일한, 구 상무 등의 인물을 배우들이 직접 연기함.
갈등	다문화 가정의 아이라는 이유로 영광의 오디션 결승행을 막는 구 상무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영광의 결승행을 진행시키려는 일한 사이의 갈등
대사와 지시문	인물의 대사를 통해 갈등 이유와 상황을 밝히고, 지시문을 통해 인물 사이의 갈등 양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서술 방식	대사와 지시문 등이 현재 시제로 서술됨.

우리학교 필수기출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 검은 옷차림.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촌장: 수고하시는군요, 파수꾼님.

나: 아, 촌장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촌장: 추억을 더듬으러 왔습니다. 이 황야는 내가 어린 시절 야생 딸기를 따러 오곤 했던 곳이지요. 그땐 이리가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여기저기 텃이 깔려 있고 망루 위의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어린 난 딸기 따기에만 열중했었으니까요. 그 즐거웠던 옛 추억,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 주는 편지를 받았습시다. 그래 이곳엘 찾아온 거예요.

(중략)

파수꾼 나 퇴장. 촌장은 ㉡편지를 꺼내 다에게 보인다.

촌장: 이것, 네가 보낸 거니? / 다: 네, 촌장님.

촌장: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 본 모양이더라.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넌 나 혼자만을 와 달라고 하지 않았니?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

다: 도끼는 왜 들고 와요?

촌장: 망루를 부순다고 그런단다.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뿐.” 그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고 있어.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러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으레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다: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촌장: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다: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 촌장: 난 알고 있지.

다: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텃을 보러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은 거예요?

촌장: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 이강백, <파수꾼>

포인트 check!

- 1 촌장은 파수꾼 '다'가 보낸 □□ 때문에 망루를 찾아왔다.
- 2 '□□□□'라는 말에는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대한 촌장의 적대감이 드러나 있다.
- 3 □□는 촌장이 진실을 밝히려는 파수꾼 '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끌어들이는 소재이다.

1 편지 2 수다쟁이 3 도끼

학습활동 응용

01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1 촌장은 이리 떼가 있다고 믿고 있다.
- 2 촌장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망루를 찾아왔다.
- 3 편지 운반인은 편지를 읽지 않고 촌장에게 전달했다.
- 4 마을 사람들은 편지 운반인을 불청객으로 여기고 있다.
- 5 파수꾼 '다'는 촌장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편지를 보냈다.

02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해설자와 촌장이 1인 2역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2 이해심 많아 보이는 얼굴은 촌장의 실제와는 다른 모습이다.
- 3 검은 옷차림은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촌장의 속내를 의미한다.
- 4 정중한 태도를 통해 상대를 존중하는 촌장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5 걸모습과 속내가 다른 모습을 통해 촌장의 위선적인 면모를 보여 준다.

03 윗글의 내용으로 볼 때, ㉡에 담긴 내용이 무엇일지 쓰시오.

0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1 진실을 밝힐 때 치러야 할 대가이다.
- 2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도구이다.
- 3 진실을 왜곡하는 대가로 받게 되는 특권이다.
- 4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감추어야 할 진실이다.
- 5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가공으로 만들어진 대상이다.

[05~0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촌장: 애야,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 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뭐지 넌 알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게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뿔들을 보살피고 ㉢양철 북을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애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A]

다: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 주려는 겁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됐어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촌장: 뭐라고?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킨 후에 웃으며) 사실 우습기도 해. 이리 떼? 그게 뭐냐? 있지도 않은 그걸 이 황야에 가득 길러 놓고, 마을엔 가서 울타리를 둘렀다. 망루도 세웠고, 양철 북도 두들기고,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기도 한다. 아하,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 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른다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다.

다: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망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촌장: 그래, 외치마.

다: 아, 이제 됐어요!

촌장: (혼잣말처럼) …… 그러나 잘될까? 흰 구름, 허공에 뜬 그것만 가지고 마을이 잘 유지될까? 오히려 이리 떼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몰라.

다: 뭘 망설이시죠?

촌장: 아냐,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온화한 얼굴에서 혀가 날름 나왔다 들어간다.) 지금 사람들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잖니? 망루를 부순 다음엔 속은 것에 더욱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지 이리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흰 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다: 살인이라고요?

촌장: 그래, 살인이지. (㉦난폭하게) 생각해 보렴. 도끼에 찍힌 내 모습을.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다. 끔찍해, 애,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다: 아니에요, 그건!

촌장: 아니라고?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니?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 떼를 만들었던가, 그걸 알려 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해 줄 거야.

다: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촌장: 허나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넌 흰 구름이라 외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 테고, 그럼 나는, 나는……. (은밀한 목소리로) 애, 네가 본 그 흰 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다: 아뇨.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촌장: 그것 봐. 넌 내 피를 보고 싶은 거야.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흰 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하, 넌 네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다: (㉧창백해지며) 그건, 그건 아니에요!

촌장: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괴로워하는 파수꾼 다를 껴안으며)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 구름이라 외칠 테니.

다: 꼭 약속하시는 거죠?

촌장: 물론 약속하지.

다: 정말이죠, 정말?

촌장: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 이강백, <파수꾼>

포인트 check!

- 1 촌장은 표면적으로는 이해심이 많고 정중하나, 그 이면에는 권력을 유지하려는 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 2 ' '는 촌장이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가공의 적이며, ' '은 이리 떼의 실체이자 밝혀야 할 진실을 의미한다.
- 3 촌장은 파수꾼 '다'의 의도를 하고,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제시하면서 파수꾼 '다'를 위협하여 진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설득하려 하고 있다.

1 우선 2 이리 떼, 흰 구름 3 왜곡

05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1 부정적 현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2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3 인물들의 복장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4 인물의 등장과 퇴장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5 언어유희를 통해 현실의 문제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06 윗글에 나타난 '촌장'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거짓 약속을 하여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있다.
- ②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거짓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 ③ 끔찍한 상황을 가정하여 상대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 ④ 주장의 진위를 밝힘으로써 상대의 잘못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많은 사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거짓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학습활동 음용

07 [A]를 바탕으로 촌장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쓰시오.

0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촌장이 마을을 통제하는 수단이다.
- ② 촌장에게 있어 ㉡은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도구이다.
- ③ 파수꾼 '다'에게 있어 ㉢은 사람들을 기만하는 도구이다.
- ④ 촌장에게 있어 ㉣은 감추어야 할 진실이다.
- ⑤ 파수꾼 '다'에게 있어 ㉣은 밝혀야 할 진실이다.

09 ㉠~㉣에 대한 연출자의 지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예상하지 못한 대답에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연기하세요.
- ② ㉡: 촌장이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듯이 연기하세요.
- ③ ㉢: 파수꾼 '다'가 불안하게 느끼도록 거친 목소리로 연기하세요.
- ④ ㉣: 촌장이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듯이 연기하세요.
- ⑤ ㉣: 파수꾼 '다'를 안은 채 뒤로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연기하세요.

[10~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파수꾼 나가 들어온다.

나: ㉠또, 헛치었습니다. 이리는 워낙 교활해서요, 친 것 같아도 가 보면 달아나고 없어요.

촌장: 다음에는 꼭 잡히겠지요.

나: ㉡미안합니다. 이번에 잡았더라면 그 껍질을 촌장님께 선사하고 싶었는데…….

촌장: 받은 거나 다름없이 감사합니다.

나: (촌장에게 안겨 있는 다를 가리키며) 그 앤 지금 몹시 아픈니다.

촌장: 네. 열이 있는 것 같군요.

나: 간밤에 담요를 덮지 않아서 병이 났어요.

촌장: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씩은 앓는 병이겠지요.

나: 내 잘못이었어요. 담요를 꼭 덮어 줘야 하는 건데. (다에게) 애야, 난 널 좋아해. 아픈 것 빨리 좀 나아 주렴.

다: (힘없이 웃으며) …… 고마워요.

나: (관객석 쪽으로 돌아서다가, 흠칫 놀라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촌장: 마을 사람들이죠.

나: 마을 사람들요?

[A] 촌장: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빙긋 웃고 있는 식량 운반인, 이 애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리 떼인지 아니면 흰 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 들어 봅시다.

파수꾼 다,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망루를 향해 걸어간다. 나가 근심스럽게 쫓아간다.

나: 애야, 괜찮겠니?

다: …… 네.

나: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넌 이리 떼란 말만 들어도 별별 떠는 겁쟁이인데 망루 위에 올라가서 앞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오지 않았니?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기회에 말이다, 넌 너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해야 한다. 알았지, 응?

촌장: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파수꾼 다는 망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마침내 부르짖는다.

다: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

파수꾼 거의 손이 번쩍 들려지며 그도 외친다.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 북을 두드린다. 북소리, 한동안 계속된다.

가: 북소리 중지! 이리 떴는 물러갔다!

촌장: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 떴뿐입니다. 이 망루는 영구히 유지되어야겠지요. 양철 북도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리의 습격 때까지 잠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하여 돌아가십시오. 가시거든 마을 광장에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수다쟁이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합시다. 그럼 어서 돌아가십시오. 이리 떴가 여러분을 물어뜯으러 옵니다.

- 이강백 <파수꾼>

포인트 check!

- 1 □□을 작품 속의 '마을 사람들'로 설정하여 다양한 문학적 효과를 의도하고 있다.
- 2 파수꾼 '다'는 진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는 촌장의 □□에 넘어가 마을 사람들에게 □□을 외친다.
- 3 촌장과 파수꾼 '다'의 □□을 통해 진실을 향한 열망과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비극을 보여 주고 있다.

1 관객 2 회유, 거짓 3 갈등

10 [A]는 관객들이 '마을 사람들'이 되어 극에 참여한 부분이다. 이와 같은 기법의 효과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 등장인물 수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 ㉡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여 흥미를 유발한다.
- ㉢ 관객 스스로가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한다.
- ㉣ 관객과 무대를 분리하여 극에 집중하게 한다.

- 1 ㉠, ㉡, ㉢ 2 ㉠, ㉡, ㉣ 3 ㉠, ㉢, ㉣
- 4 ㉡, ㉢, ㉣ 5 ㉠, ㉡, ㉣, ㉣

11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촌장은 수다쟁이 운반인에게 보복하려 하고 있다.
- 2 파수꾼 '다'는 체제에 순응하는 인물로 변화하였다.
- 3 파수꾼 '나'는 진심으로 파수꾼 '다'를 걱정하고 있다.
- 4 파수꾼 '나'는 외부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 5 파수꾼 '다'는 촌장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학습활동 응용

12 <보기>는 이 글에 나타난 파수꾼 '다'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윗글을 참고하여 파수꾼 '다'가 극의 후반에 보이는 모습을 쓰시오.

보기		
극의 초반	극의 중반	극의 후반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함.	촌장의 계략에 휘말려 심리적 혼란을 겪음.	

1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우화적 기법을 활용하여 1970년대의 폭압적 정치 현실을 풍자하고 있는 희곡이다. 당시 독재 정권은 체제 유지를 위해 거짓된 안보 논리를 내세워 국민을 억압하였는데, 이를 촌장, 파수꾼이라는 상징적 인물들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또한 진실을 둘러싼 촌장과 파수꾼 '다'의 대립과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1 촌장은 거짓된 안보 논리를 내세우는 독재 정권을 상징한다.
- 2 마을 사람들은 촌장에게 기만당한 채 살아가는 국민들을 상징한다.
- 3 파수꾼 '나'는 독재 정권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추종자를 상징한다.
- 4 수다쟁이 운반인은 거짓된 안보 논리를 만들어 내는 언론을 상징한다.
- 5 파수꾼 '다'는 진실을 폭로하려 하지만 권력의 논리에 설득당하는 나약한 지식인을 상징한다.

1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 파수꾼 '나'는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
- 2 ㉡: 파수꾼 '나'는 촌장을 의심하지 않고 있다.
- 3 ㉢: 촌장은 파수꾼 '다'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고 있다.
- 4 ㉣: 파수꾼 '다'의 내적 갈등을 보여 준다.
- 5 ㉣: 촌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파수꾼 '다'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04 교술 갈래의 이해

통곡할 만한 자리 _ 박지원

갈래	고전 수필, 한문 수필, 기행문	성격	비유적, 교훈적, 사색적, 체험적	
제재	광활한 요동 벌판	주제	광활한 요동 벌판을 보며 느끼는 감회	
특징	① 일반적인 통념을 깨뜨리는 작가의 참신한 발상이 돋보임. ② 문답으로 진행되는 구성 방식을 통해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함. ③ 적절한 비유와 구체적인 예시로 대상을 실감 나게 표현함. ④ 만주 지역의 광야를 묘사한 작품 중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받음.			
구성	기(起) 글쓴이가 요동 벌판을 본 후, '통곡하기 좋은 곳'이라고 평가하여 말함.	승(承) 정 진사가 글쓴이에게 요동 벌판을 보고 '통곡하기 좋은 곳'이라고 말한 까닭을 묻고, 글쓴이는 사람은 모든 감정이 극에 달하면 울게 된다고 답함.	전(轉) 정 진사가 칠정 가운데 어느 정으로 울어야 하는지 묻고, 글쓴이는 갓난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우는 울음과 같이 넓은 곳에 처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울면 된다고 대답함.	결(結) 요동 벌판의 광활함을 재차 확인하고, 일행의 이어지는 여정과 백담에 대한 소감을 밝힘.

포인트 1

글쓴이의 관점

대상	대상을 바라보는 글쓴이의 관점
요동 벌판	한바탕 통곡하고 싶음.
울음	인간의 칠정에 해당하는 모든 감정이 극에 이르면 울게 됨.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의 울음	캄캄하게 막힌 어머니의 태중에 갇혀 있다가 넓은 세상으로 나와 기쁘고 즐거워서 우는 것임.

포인트 2

글쓴이의 개성 ★★

형식의 독특함	문답 형식을 통해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냄.
발상의 새로움	일반적인 통념을 깨뜨리고 요동 벌판을 소재로 울음에 대해 새롭게 해석함.
비유의 참신함	요동 벌판을 보고 느낀 기쁨을 갓난아이가 넓은 세상에 나와 기뻐서 우는 것에 비유함.

포인트 3

<요아>에 나타난 <통곡할 만한 자리>의 특징 ★ 활동속작품

갈래	한시(오언 고시)	성격	체험적, 영탄적, 예찬적
주제	광활한 요동 벌판에 대한 감탄		
특징	박지원의 <통곡할 만한 자리>를 인용하여 요동 벌판에서 느끼는 경외심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요동 벌판에 대한 박지원의 생각에 공감하고, 그에 따른 표현을 높이 평가함.

- 평가: 요동 벌판이 큰 울음터라는 박지원의 생각과 그에 대한 비유는 재미나고 신묘함.
- 근거: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세상에 나와 우는 것에 비유했기 때문임.



<통곡할 만한 자리>의 문학적 특징

적절한 비유를 활용하여 참신한 발상을 구체화함.

포인트 4

글쓰이의 가치관 ★

주요 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정조 때의 실학자 • 박명원의 수행원으로 청나라에 다녀온 후에 《열하일기》를 저술함. • 북학론을 주장하며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실학을 강조함.
핵심 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학파로서 청나라의 선진 문물제도, 생활 양식 등을 수용할 것을 주장함. • 상공업과 기술 혁신에 관심을 쏟음.
대표 저서	《열하일기》는 청나라 사신단으로 열하까지 갔을 때의 견문을 정리한 기행 문집으로 청나라의 발전과 서양의 새로운 학문이 소개되어 있음.



<통곡할 만한 자리>의 창작 동기: 청나라의 앞선 문물을 받아들여 경직된 조선 사회를 변화, 개혁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포인트 5

<반 통의 물>에 나타난 교술 갈래의 특징 ★ 활동속작품

갈래	현대 수필, 경수필	성격	사색적, 교훈적, 일상적
주제	발을 가꾸면서 얻은 깨달음, 생명을 돌보고 가꾸는 일의 소중함.		
특징	① 일상적인 사건에서 인생의 깨달음을 도출함. ② 주제를 은유적, 설의적으로 제시함.		

개인적이고 진솔한 표현 활용

불편한 몸으로 뒷발에 물을 주기 위해 물통을 들고 걸어가는 할아버지를 보며 이상한 평화를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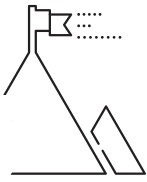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서술

뒷발을 가꾸는 할아버지에 대한 관찰과 이해라는 경험적 사건을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서술함.

글쓰이의 개성과 가치관 표출

물을 길러 가는 행위를 살아 있는 생명체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려는 의지로서의 인간힘이라고 생각함.

우리학교 필수기출



[01~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7월 초8일 갑신일

맑다.

㉡ 정사와 한 가마를 타고 삼류하(三流河)를 건너 냉정(冷井)에서 조반을 먹었다. 십여 리를 가다가 산기슭 하나를 돌아 나가니 태복(泰卜)이란 놈이 갑자기 국궁(鞫躬)을 하고는 말 머리로 쫓아와서 땅에 엎드리고 큰 소리로,

㉢ “백탑(白塔)이 현신하였기에, 이에 아뢰나이다.” 한다. 태복은 정 진사의 마두이다.

산기슭이 가로막고 있어 백탑이 보이지 않기에 말을 급히 몰아 수십 보를 채 못 가서 겨우 산기슭을 벗어났는데, ㉣ 안광이 어질어질하더니 홀연히 검고 동그란 물체가 오르락내리락한다.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이란 본래 의지하고 붙일 곳 없이 단지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이리저리 나다니는 존재라는 것을.

말을 세우고 사방을 둘러보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로구나.”

했더니 정 진사가,

“천지간에 이렇게 시야가 툭 터진 곳을 만나서는 별안간 통곡할 것을 생각하시니, 무슨 까닭입니까?”

하고 묻기에 나는,

“㉤ 그렇긴 하나, 글썄. 천고의 영웅들이 잘 울고, 미인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나, 기껏 소리 없는 눈물이 두어 줄기 옷깃에 굴러떨어진 정도에 불과하였지, 그 울음소리가 천지 사이에 울려 퍼지고 가득 차서 마치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다는 얘기는 들어 보지 못했네.

사람들은 단지 인간의 칠정(七情) 중에서 오로지 슬픔만이 울음을 유발한다고 알고 있지, 칠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줄은 모르고 있네. 기쁨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 만하고, 분노가 극에 치밀면 울음이 날 만하며, 즐거움이 극에 이르면 울음이 날 만하고, 사랑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 만하며, 미움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 만하고, 욕심이 극에 달해도 울음이 날 만한 걸세. 막히고 억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 버리는 데에는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네.

통곡 소리는 천지간에 우레와 같아 지극한 감정에서 터져 나오고, 터져 나온 소리는 사리에 절실할 것이니 웃음소리와 뭐가 다르겠는가? 사람들이 태어나서 사정이나 형편이 이런 지극한 경우를 겪어 보지 못하고 칠정을 교묘하게 배치하여 슬픔에서 울음이 나온다고 짝을 맞추어 놓았다네. ㉥ 그리하여 초상이 나서야 비로소 억지로 ‘아이고’ 하는 등의 소리를 질러 대지.

그러나 정말 칠정에서 느껴서 나오는 지극하고 진실한 통곡 소리는 천지 사이에 억누르고 참고 억제하여 감히 아무 장소에서나 터져 나오지 못하는 법이네. 한나라 때 가의(賈誼)는 적당한 통곡의 자리를 얻지 못해 울음을 참다가 견뎌 내지 못하고 갑자기 한나라 궁실인 선실(宣室)을 향해 한바탕 길게 울부짖었으니, 어찌 사람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 박지원, <통곡할 만한 자리>

포인트 check!

- 1 이 작품은 수필로, 형식으로 서술되고 있다.
- 2 에 의한 구성 방식을 통해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3 적절한 와 구체적인 로 대상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1 기행, 일기 2 문답 3 비유, 예시

01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1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바람직한 삶을 모색하고 있다.
- 2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 3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공간의 역사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4 기존의 관념과 다른 발상을 통해 자신의 느낌을 드러내고 있다.
- 5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02 뒷글의 글쓴이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1 칠정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나온다.
- 2 울음에는 감정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다.
- 3 울음은 웃음과 달리 지극한 감정에서 나온다.
- 4 사람들은 슬픔이 울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한다.
- 5 가의는 한나라 궁실을 향해 진정한 울음을 울었다.

03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는 진정한 울음과 그렇지 않은 울음이 있다고 생각한다.
- ②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을 일곱 개로 구분하여 이해하였다.
- ③ 글쓴이는 감정의 표현이 어디에서든지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④ 글쓴이는 지극한 감정에서 터져 나온 울음은 쉽게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 ⑤ 글쓴이는 슬픔에서 울음이 나온다고 짝 지어 놓은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학습활동 응용

04 <보기>는 윗글에 나타난 대상에 대한 인물의 관점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정리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정 진사(일반 사람)	요동 별판	글쓴이(박지원)
㉠	요동 별판	㉡
㉢	울음	㉣

- ① ㉠: 요동 별판의 장관을 보며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 ② ㉡: 요동 별판의 장관을 보며 한바탕 울고 싶어 한다.
- ③ ㉢: 울음은 슬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④ ㉣: 울음은 모든 감정이 극에 달할 때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⑤ ㉠과 ㉡가 일반적 사고라면, ㉡와 ㉣는 개성적 사고에 해당한다.

05 <보기>의 내용이 드러난 부분을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글쓴이가 자연의 광활함을 보고 인간이 미미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부분으로, 요동 별판을 보고 느낀 감동의 깊이와 울림을 드러내고 있다.

0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호곡장기(好哭場記)>는 《열하일기》에 수록된 글로, <통곡할 만한 자리>는 ‘호곡장’을 우리말로 바꾼 것이다. 이 글에서 박지원은 광활한 별판을 마주하고 느낀 벽찬 감정을 울음이라고 표현하여 태초의 공간을 마주한 듯한 감동을 드러내고 있다. 북학파였던 박지원의 학문 세계와 가치관, 《열하일기》가 담고 있는 주제 의식 등을 고려한다면 이 울음은 비좁은 조선 땅에서 벗어나 발전된 청나라에 당도한 글쓴이가 느낀 시대적 감동이기도 하다.

- ① 글쓴이는 청나라에 비해 낙후된 조선의 현실이 답답하여 통곡하고 싶어 한다.
- ② 글쓴이는 조선보다 발전된 청나라에 대해 느끼는 열등감을 통곡을 하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글쓴이는 발전된 청나라로부터 문물을 받아들여 변화해 나갈 조선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통곡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정 진사는 글쓴이가 청나라에 당도해서 느낀 시대적 감동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공감을 표현하기 위해 글쓴이에게 통곡의 의미를 묻고 있다.
- ⑤ 요동의 광활한 별판은 비좁은 조선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글쓴이는 좁은 곳에서 벗어난 후련함과 벽찬 감정을 통곡할 만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학습활동 응용

07 <보기>는 ㉠의 의미를 풀이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보기

백탐이 곧 보일 것이라는 의미로, 백탐을 ()하여 마치 백탐이 탐을 보러 오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0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일기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 기행문의 요소 중 하나인 여정이 나타나 있다.
- ③ ㉢: 요동 별판의 광활함을 본 글쓴이의 충격이 나타나 있다.
- ④ ㉣: 요동 별판을 보고 통곡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을 말하고 있다.
- ⑤ ㉣: 억지로 하는 ‘아이고’는 진실한 통곡 소리가 아님을 말하고 있다.

[09-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천지간에 이렇게 시야가 툭 터진 곳을 만나서는 별안간 통곡할 것을 생각하시니, 무슨 까닭입니까?”

하고 묻기에 나는,

“그렇긴 하나, 글썄. 천고의 영웅들이 잘 울고, 미인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나, 기껏 소리 없는 눈물이 두어 줄기 옷깃에 굴러떨어진 정도에 불과하였지, 그 울음소리가 천지 사이에 울려 퍼지고 가득 차서 마치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다는 얘기는 들어 보지 못했네.

사람들은 단지 인간의 칠정(七情) 중에서 오로지 슬픔만이 울음을 유발한다고 알고 있지, 칠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줄은 모르고 있네. 기쁨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 만하고, 분노가 극에 치밀면 울음이 날 만하며, 즐거움이 극에 이르면 울음이 날 만하고, 사랑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 만하며, 미움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 만하고, 욕심이 극에 달해도 울음이 날 만한 걸세. 막히고 억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 버리는 데에는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네.

통곡 소리는 천지간에 우레와 같아 지극한 감정에서 터져 나오고, 터져 나온 소리는 사리에 절실할 것이니 웃음소리와 뭐가 다르겠는가? 사람들이 태어나서 사정이나 형편이 이런 지극한 경우를 겪어 보지 못하고 칠정을 교묘하게 배치하여 슬픔에서 울음이 나온다고 짝을 맞추어 놓았다네. 그리하여 초상이 나서야 비로소 억지로 ‘아이고’ 하는 등의 소리를 질러 대지.

그러나 정말 칠정에서 느껴서 나오는 지극하고 진실한 통곡 소리는 천지 사이에 억누르고 참고 억제하여 감히 아무 장소에서나 터져 나오지 못하는 법이네. 한나라 때 가의(賈誼)는 적당한 통곡의 자리를 얻지 못해 울음을 참다가 견뎌 내지 못하고 갑자기 한나라 궁실인 선실(宣室)을 향해 한바탕 길게 울부짖었으니, 어찌 사람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니 정 진사는,

㉢ “지금 여기 울기 좋은 장소가 저토록 넓으니, 나 또한 그대를 좇아 한바탕 울어야 마땅하겠는데, 칠정 가운데 어느 정에 감동받아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기에 나는,

“그건 ㉡ 갓난아이에게 물어보시게. 갓난아이가 처음 태어나 칠정 중 어느 정에 감동하여 우는지? 갓난아이는 태어나 처음 해와 달을 보고, 그다음에 부모와 앞에 꼭 찬 친척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은 늙을 때까지 두 번 다시 없을 터이니, 슬퍼하거나 화를 낼 이치가 없을 것이고 웅당 즐거워하고 웃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도리어 한없이 울어 대고 분노와 한이 가슴에 꼭 찬 듯이 행동을 한단 말이야. 이를 두고, 신성하게

태어나거나 어리석고 평범하게 태어나거나 간에 사람은 모두 죽게 되어 있고, 살아서는 허물과 걱정 근심을 백방으로 겪게 되므로, 갓난아이는 자신이 태어난 것을 후회하여 먼저 울어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갓난아이의 본마음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이네.

갓난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캄캄하고 막히고 좁은 곳에서 웅크리고 부대끼다가 갑자기 넓은 곳으로 빠져나와 **[A]** 손과 발을 펴서 기지개를 켜고 마음과 생각이 확 트이게 되니, 어찌 참소리를 질러 억눌렀던 정을 다 크게 씻어 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갓난아이의 거짓과 조작이 없는 참소리를 웅당 본받는다면, 금강산 비로봉에 올라 동해를 바라봄에 한바탕 울 적당한 장소가 될 것이고, 황해도 장연(長淵)의 금모래 사장에 가도 한바탕 울 장소가 될 것이네. 지금 요동 들판에 임해서 여기부터 산해관(山海關)까지 일천이백 리가 도무지 사방에 한 점의 산이라고는 없이, 하늘 끝과 땅끝이 마치 아교로 붙인 듯, 실로 께맨 듯하고 고금의 비와 구름만이 창창하니, 여기가 바로 **[C]** 한바탕 울어 볼 장소가 아니겠는가?”

한낮에는 매우 더웠다. 말을 달려 고려총(高麗叢, 아미장(阿彌庄)을 지나서 길을 나누어 갔다. 나는 주부 조달동, 변군, 박래원, 정진사, 겸인(謙人) 이학령과 함께 옛 요동으로 들어갔다. 변화하고 풍부하기는 봉성의 열 배쯤 되니 따로 요동 여행기를 써 놓았다. 서문을 나서서 백담을 구경하니 그 제조의 공교하고 화려하며 웅장함이 가히 요동 별판과 맞먹을 만하다. 따로 백담에 대해 적은 <백담기(白塔記)>가 뒤편에 있다.

- 박지원, <통곡할 만한 자리>

포인트 check!

- 1 정 진사의 관점과 '나'의 관점을 함으로써 인간의 정서와 그 표출 방식에 대한 적 사고를 드러내고 있다.
- 2 글쓴이가 느낀 기쁨을 의 울음에 비유하여 울음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보여 주고 있다.
- 3 창의적인 과 한나라 가의의 사례, 갓난아이의 울음에 대한 비유 등을 활용하여 글쓴이의 을 드러내고 있다.

1 대비(대조), 창의 2 갓난아이 3 발상, 개성

0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글쓴이의 가치관을 관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비유를 활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우화를 제시하여 글쓴이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대화를 통해 상대 주장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 ⑤ 회상을 통해 글쓴이의 생각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학습활동 응용

1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통곡할 만한 자리>에는 일반적인 통념을 깨뜨리고 울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는 발상의 전환, 즉 창의적 사고가 드러나 있다.

- ① 울음이 칠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창의적 사고에 해당된다.
- ② 울음이 슬픔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통념에 해당된다.
- ③ 갓난아이가 태어나 우는 이유가 즐거움 때문이라는 것은 창의적 사고에 해당된다.
- ④ 갓난아이가 좁은 곳에 있다가 넓은 곳에 나와서 기뻐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통념에 해당된다.
- ⑤ 금강산에 올라 동해를 바라보고 감동하여 우는 것은 울음에 대한 창의적 사고에 기반한 행동이다.

11 글쓴이가 요동 벌판의 광활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문장을 찾아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쓰시오.

학습활동 응용

12 <보기>를 참고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박지원은 조선 정조 때의 문장가이자 실학자이다. 그는 청나라의 앞선 문물제도 및 생활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였다. 《열하일기》는 작가가 중국을 다녀온 단순한 기행문이 아니라, 당시 중국 중심의 세계관 속에서 청나라의 변창한 문물을 받아들여 성리학 중심의 낙후한 조선의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을 집대성한 글이다.

- ① ‘갓난아이’는 낙후한 조선의 현실을 의미한다.
- ② ‘어머니 태중’은 성리학 중심의 조선 사회의 폐쇄성을 의미한다.
- ③ ‘참소리’는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임금의 노력을 의미한다.
- ④ ‘억눌렸던 정’은 당시 청나라의 지배로 인해 조선이 받았던 고통을 의미한다.
- ⑤ ‘웅크리고 부대끼다가’는 조선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1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갓난아이는 태어난 것을 후회하여 우는 것이다.
㉡. 갓난아이는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우는 것이다.
㉢. 갓난아이는 부모와 친척을 만나 즐겁고 기뻐서 우는 것이다.
㉣. 갓난아이는 좁은 곳에 있다 넓은 곳으로 나온 기쁨으로 인해 우는 것이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14 글쓴이가 ㉠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곳을 윗글에서 모두 찾아 쓰시오.

1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글쓴이의 말에 공감하고 있는 반면, ㉡는 글쓴이의 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② ㉠은 글쓴이의 말을 반박하는 물음인 반면, ㉡는 글쓴이의 말을 의심하는 물음이다.
- ③ ㉠은 글쓴이의 말에 동의하는 물음인 반면, ㉡는 글쓴이의 말을 반박하는 물음이다.
- ④ ㉠은 글쓴이의 말에 의아함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는 글쓴이의 말에 수긍하고 있다.
- ⑤ ㉠과 ㉡ 모두 글쓴이의 말에 대한 풍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학습활동 응용

16 윗글을 교술 갈래라고 할 수 있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 ① 관객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③ 경험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주관적 정서를 진술하고 있다.
- ④ 인물들의 갈등과 그 해소를 바탕으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글쓴이의 정서를 리듬감 있고 압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대단원 최종실전 1회

문항 유형	문항수 × 배점	점수
객관식	14문항 × 3점	42점
	6문항 × 4점	24점
단답·서술형	6문항 × 3점	18점
	4문항 × 4점	16점
계	30문항	100점

※ 점수 표기가 없는 문항은 3점입니다.

[01~0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인간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다. 그 가운데 예술은 표현 욕구가 반영된 주요한 활동이다. 생각과 감정에는 본래 형태가 없는데 예술가는 여기에 미적 질서가 담긴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해서 예술을 창조한다. 이 과정이 형상화이다. 생각과 감정을 소리의 형식으로 형상화하면 음악이 되고, 색채와 형태의 형식으로 형상화하면 미술이 되며, 몸짓의 형식으로 형상화하면 무용이 되듯이 언어의 형식으로 형상화하면 문학이 된다. 문학은 이처럼 언어라는 형식을 벗어날 수 없는 예술이다.

그런데 모든 생각이나 감정을 언어로 형상화하면 문학이 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문학은 궁극적으로 개인이나 공동체의 아름다움이나 진실과 같은 가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라는 형식으로 형상화하여 표현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문학 작품은 언어라는 형식, 가치 있는 주제라는 내용, 형상화된 표현이라는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다. 문학을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은 언어 형식과 형상화된 표현을 포괄하여 형식이라 한 것이다.

문학의 각 구성 요소들은 서로 긴밀하게 결합하여 하나의 문학 작품 속에 녹아 있는데, 이를 유기적 관계라고 한다.

나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A]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를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일어 죽을 때

[B]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C]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병긋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죠.”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새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목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 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 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 주었다. 포도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어제다. 문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길을 칸 듯하였다.

그런데 포도원계를 올라오노라니가 누가 맑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 케…… 와 나…… 미다카다메이…… 키…… 카…….”

를 부르며 큰길에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알은체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획 길 아래로 내려서 ㉣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이 이상은 위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 담배를 다 펍 펍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 이태준, <달밤>

01 (가)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자는 가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군.
- ② (나)는 시의 형식을 활용하여 생각과 감정을 색채와 형태의 형식으로 형상화하고 있군.
- ③ (나)의 종결 어미의 반복은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문학의 표현 요소에 해당하는군.
- ④ 이기적인 삶에 대해 비판하는 (나)의 내용은 가치 있는 주제라는 문학의 내용 요소에 해당하는군.
- ⑤ (나)는 추상적 개념을 의인화하여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서술형

02 <보기>는 (나)에 대한 발표의 일부이다.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대상을 찾아 쓰시오.

보기

이 작품은 기쁨과 슬픔에 대한 독특한 발상과 표현을 바탕으로 하여 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비판하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자는 교훈적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는 작품 속에서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적 형상화 방법을 활용하여 주제를 전달하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서정적이고 심미적인 느낌을 줍니다. 또한 추상적 개념을 의인화한 화자가 등장하여 소외된 이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의 정서를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적 화자의 존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

- 2명의 대상을 제시할 것
- 각 대상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간략하게 서술할 것

고난도

03 (나)와 <보기>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점]

보기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 정호승,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 ① (나)는 <보기>와 달리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나)는 <보기>와 달리 이중 부정을 사용하여 강한 긍정의 효과를 의도하고 있다.
- ③ <보기>는 (나)와 달리 화자를 표면에 드러내어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와 <보기> 모두 설의적 의문을 통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나)와 <보기> 모두 대비되는 시어를 통해 특정 대상에 대한 애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04 (가)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인칭 서술자 '나'가 황수건을 관찰하여 전달하는 표현 형식을 활용하여, 황수건에게 주목하게 하고 있다.
- ② 도둑질을 한 황수건을 긍정적으로 보는 '나'의 결여된 윤리성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주제를 담고 있다.
- ③ 삶에 지친 황수건이라는 인물을 따뜻한 연민의 정서로 바라보는 '나'의 태도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 ④ '달밤'이라는 시·공간적 배경은 소설의 형식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설의 분위기를 서정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 ⑤ 현실에서 있음직한 황수건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내는 형식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서술형

05 <보기>를 참고하여 (다)의 <포도>에 담긴 의미를 서술하시오.

보기
'나'는 황수건에게 참외 장사를 해 보라고 돈 삼 원을 주었다. 그는 돈을 받고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조건
•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도록 쓸 것

고난도

06 의미 구조를 고려할 때, [A]~[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① [A]에서 '너'의 이기적인 모습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B]에서 '너'의 이기적인 모습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 ② [B]에서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와 [C]의 '추위에 떠는 사람들'은 그 함축적 의미가 유사한 소재로 볼 수 있다.
- ③ [A]의 '겨울밤', [B]의 '동사자', [C]의 '함박눈', '봄눈'을 통해 이 시가 모두 '추위'의 이미지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나'는 [A]에서는 '너'에게 '슬픔'을 주고자 하고, [B]에서는 '너'에게 '기다림'을 주고자 하고, [C]에서는 '너'와 함께 걸어가고자 한다.
- ⑤ 이 시는 [A]~[C]의 시상 전개를 통해 슬픔의 가치를 알고 소외된 이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제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0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이라는 통념과 반대되는 표현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 '봄눈'이라는 상징적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 '포도'라는 소재와 '나'의 행동을 통해 '나'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나'의 행동을 통해 황수건을 향한 '나'의 배려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담배'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황수건의 천진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08~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럼, 전에 사람은 어디를 맡았소?”
하니 그는 픽 웃으며,
“그까짓 반편을 어딜 맡깁니까? 배달부로 쓸라다가 똑똑지가 못하니까 안 쓰고 맡었나 봅시다.” / 한다.
“그럼 보조 배달도 떨어졌소?” / 하니,
“그럼요, 여기가 따루 한 구역이 된걸요.”
하면서 방울을 울리며 나갔다.

이렇게 되었으니 황수건이가 우리 집에 올 길은 없어지고 말았다. 나도 가끔 문 안엔 다니지만 그의 집은 내가 다니는 길엥은 아닌 듯 길가에서도 잘 보이지 않았다.

[A]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낸 것처럼, 아니 친구가 큰 사업에나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못 만나는 섭섭뿐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다. 그 당자와 함께 세상의 야박함이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한데 황수건은 그의 말대로 노랑 수건이라면 온 동네에서 유명은 하였다. 노랑 수건 하면 누구나 성북동에서 오래 산 사람이면 먼저 웃고 대답하는 것을 나는 차츰 알았다.

내가 잠깐씩 며칠 보기에다 그랬거니와 그에겐 우스운 일화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삼산학교에 급사로 있을 시대에 삼산학교에다 남겨 놓고 나온 일화도 여러 가지라는데, 그중에 두어 가지를 동네 사람들의 말대로 옮겨 보면, 역시 그때부터도 이야기하기를 대단 즐겨 선생들이 교실에 들어간 새, 손님이 오면 으레 손님을 앉히고는 자기도 걸상을 갖다 떡 마주 놓고 앉는 것은 물론, 마주 앉아서 곧 자기류의 만담 삼매로 빠지는 것인데, 한번은 도 학무국에서 시학관이 나온 것을 이따위로 대접하였다. 일본말을 못 하니까 만담은 할 수 없고 마주 앉아서 자꾸 일본말을 연습하였다.

“센세이 히, 오하요 고자이마쓰카……. 히히 아메가 후리마쓰 유키가 후리마쓰카 히히…….”

시학관도 인정이라 처음엔 웃었다. 그러나 열 번 스무 번을 되풀이하는 데는 성이 나고 말았다. 선생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종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한 선생이 나와 보니 종 칠 것도 있어 버리고 손님과 마주 앉아서 ‘오하요 유키가 후리마쓰카…….’ 하는 판이었다.

그날 수건이는 선생들에게 단단히 물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노라고 했으나,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그에 쫓겨 나오고 만 것이다.

- 이태준, <달밤>

나 앞부분의 줄거리

명나라 때 홍무와 부인 양씨는 뒤늦게 계월을 낳아, 남자 웃을 입혀 기른다. 장사랑의 난을 피하다가 부모와 헤어진 계월은 강물에 버려진다. 여공이 계월을 구해 평국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고, 아들 보국과 함

께 꼭 도사에게 수학하게 한다. 남장을 한 계월은 이름을 평국이라 고친 뒤 보국과 함께 과거에 급제하고, 서달의 난이 일어나자 대원수와 중군장으로 출전하여 공을 세운다. 그 과정에서 평국은 헤어졌던 부모를 만나게 된다. 병이 든 평국은 어의에게 진맥을 받고 난 뒤 여자임이 밝혀진다.

어의가 엎드려 아뢰었다.

“평국의 맥을 보오니 남자의 맥이 아니오니 이상한 일이옵니다.”

천자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평국이 여자라면 어찌 전장에 나아가 적병 십만 군을 소멸하고 왔겠는가? 평국의 얼굴이 복숭아꽃 빛이요 몸이 약하므로 혹 미심쩍은 점이 있거니와 아직은 누설하지 말라.”

그러시고는 내시를 시켜 자주 문병하도록 하셨다.

이때 평국은 병세가 차차 나아졌다. 생각하기를,

‘어의가 나의 맥을 짚었으니 나의 본색이 탄로 날 것이다. 이제 할 수 없이 여자 옷으로 바뀌 입고 규중에 몸을 감추어 세월을 보내는 것이 옳겠다.’

하고, 즉시 남자 옷을 벗고는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서 부모를 뵈었다. 그리고 흐느끼니 두 뺨에 두 줄기 눈물이 줄줄 흘렀다.

이에 부모도 눈물을 흘리며 위로했다. 계월이 슬픔에 잠겨 우는 모습은 추구월 연꽃이 가랑비를 머금은 듯, 초승달이 구름에 잠긴 듯했으며 아름다우며 침착한 태도는 당대의 제일이었다.

계월이 천자에게 상소를 올리자, 임금께서 보셨는데 상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한림학사 겸 대원수 좌승상 청주후 평국은 머리를 조아려 백 번 절하고 아뢰옵나이다. 신첩이 다섯 살이 되기 전에 장사랑의 난에 부모를 잃었사옵나이다. 그리고 도적 맹길의 환을 만나 물속의 외로운 닢이 될 뻔한 것을 여공의 덕으로 살아났사옵나이다. 오직 한 가지 생각을 했으니, 곧 여자의 행실을 해서는 규중에서 늙어 부모의 해골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행실을 버리고 남자의 옷을 입어 황상을 속이 옴고 조정에 들었사오니 신첩의 죄는 만 번을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에 감히 아뢰어 죄를 기다리옵고 내려 주셨던 유지(諭旨)와 인수(印綬)를 올리옵나이다. 임금을 속인 죄를 물어 신첩을 속히 처참하옵소서.’

천자께서 글을 보시고 용상(龍床)을 치며 말씀하셨다.

“평국을 누가 여자로 보았으리요? 고금에 없는 일이다. 천하가 비록 넓으나 문무(文武)를 다 갖추어 갈충보국(竭忠報國)하고, 충성과 효도를 다하며 조정 밖으로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될 만한 재주를 가진 이는 남자 중에도 없을 것이로다. 평국이 비록 여자지만 그 벼슬을 어찌 거두겠는가?”

- 작가 미상, <홍계월전>

08 (가)와 (나)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 있는 반면, (나)는 서술자가 이야기 속의 인물이다.
- ② (가)는 서술자가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를 들려주는 반면, (나)는 서술자가 주변 인물이 되어 사건을 관찰하고 있다.
- ③ (가)는 서술자가 주변 인물이 되어 사건을 관찰하고 있는 반면, (나)는 서술자가 전지적 위치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서술자가 전지적 위치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09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황수건은 성북동에서 이름만 말해도 알 만한 인물이었다.
- ② (가): 황수건은 우스운 일화를 여럿 남길 정도로 모자란 인물이었다.
- ③ (나): 평국은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받고자 천자에게 상소를 올렸다.
- ④ (나): 평국은 부모를 찾기 위해 남장을 했다는 사실을 천자에게 알리고 있다.
- ⑤ (나): 어의는 평국이 남자의 맥이 아닌 것을 알고 이를 천자에게 아뢰었다.

서술형

10 (가)의 '나'가 동네 사람들과 <보기>와 같은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 동네 사람의 답변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4점]

보기

'나': 황수건이 삼산학교 급사에서 쫓겨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네 사람: _____

조건

- 황수건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할 것

고난도

11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보기
이 소설은 1930년대의 서울 성북동을 배경으로 한다. 사람들에게 못난이 취급을 받는 황수건이란 인물과 화자인 '나' 사이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작가는 이를 통해 변해 가는 세태 속에서 인정미의 소중함을 부각하고자 하였다. 작가는 우둔하지만 순박한 황수건이 세상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적인 정이 사라져 가는 각박한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① “그까짓 반편을 어딜 맡깁니까?”라는 표현에서 황수건이 못난이로 불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황수건이 학교 급사 자리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통해 인간적인 정이 사라져 가는 세태를 볼 수 있다.
- ③ 황수건을 성북동 사람들이 다 아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이 성북동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나’가 황수건이 어디에 사는지 정확히 모르는 모습을 통해 타인의 삶에 무관심한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⑤ 황수건이 신문 배달원의 자리를 잃은 것을 통해 세상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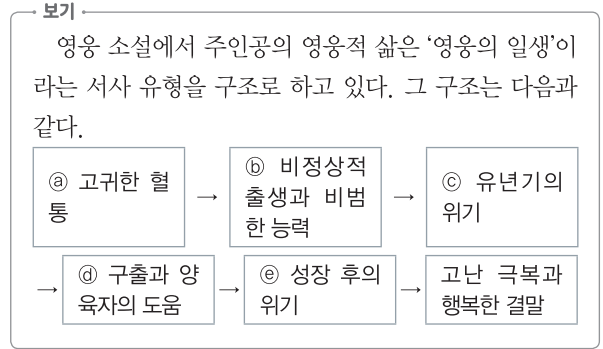
서술형

12 <보기>는 (가)의 황수건과 관련된 일화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황수건의 성격을 서술하시오. [4점]

보기
그는,
“너희 색시 달아난다.”
하는 말을 제일 무서워했다 한다. 한번은 어느 선생이 장난말로,
“요즘 같은 따뜻한 봄날엔 옛날부터 색시들이 달아나기를 좋아하는데 어제도 저 아랫말에서 둘이나 달아났단니까 오늘은 이 동네에서 꼭 달아나는 색시가 있을걸…….”
했더니 수건이는 점심을 먹다 말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어서 바빠 하학을 시키고 집으로 갈 양으로 오십 분 만에 치는 종을 이십 분 만에, 삼십 분 만에 함부로 다가서 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조건
• <보기>의 내용을 요약하여 근거로 제시할 것

1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월이 흥무와 부인 양씨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에 따르면 계월의 부모는 높은 신분에 해당할 거야.
- ② 전쟁으로 인해 부모와 헤어지고 강물에 버려진 계월의 모습은 ㉢에 해당돼.
- ③ 여공이 계월을 구하고, 자신의 아들과 함께 곶 도사에게 수학하게 하는 것은 ㉤에 해당돼.
- ④ 평국이 어의에게 진맥을 받고 난 뒤 여자임이 밝혀지고 장수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에 해당돼.
- ⑤ 계월이 비정상적으로 출생하고 비범한 능력을 보이는 ㉡의 내용은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

14 [A]에 나타난 ‘나’의 심정과 ‘나’가 그렇게 느낀 이유를 쓰시오.

[15~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파수꾼 나 퇴장. 촌장은 편지를 꺼내 다에게 보인다.

촌장: 이것, 네가 보낸 거니?
다: 네, 촌장님.
촌장: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 본 모양이더라.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넌 나 혼자만을 와 달라고 하지 않았니?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
다: 도끼는 왜 들고 와요?
촌장: 망루를 부순다고 그런단다.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뿐.” 그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고 있어.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으레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다: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촌장: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다: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촌장: 난 알고 있지.

다: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밧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은 거예요?

촌장: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다: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 떼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고 사는데 그게 더 좋아요?

촌장: 애야,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게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밧들을 보살피고 양철 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복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애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다: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 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됐어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 이강백, <파수꾼>

나 앞부분의 줄거리

음악 감독 '유일한'은 규모가 작은 뮤지컬을 전전하던 중 우연한 기회로 뮤지컬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고, 다문화 가정의 소년 '영광'과 팀을 이루게 된다. 노래 실력이 뛰어난 영광은 시청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된다. 그러나 제작자는 영광이 주인공이 될 것을 꺼려하여, 일한의 거짓 학력을 빌미로 삼아 그에게 결승전을 포기하라고 강요한다.

#112 대기실

일한: 저 결승전 포기하겠습니다.

조용히 얘기하는 일한.

일한: 저는 자격이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이 방송에 학력을 위조했습니다. 맨해튼이라는 학교는 가 본 적도 없고, 또 라스 폰 트라얀 선생은 제 스승도 아니고 그냥 제가 존경하는 작곡가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 아닙니다.

(잠시 침묵) 다 변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다 가짜입니다. 하지만 영광이는 아니에요. 그 아이가 무대 위에 못 올라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일한을 돌려세우는 구 상무.

구 상무: 야, 유일한!

일한: 누구보다 노력했고, 누구보다 재능도 많고, 지금 시청자들도 저 아이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요? 채도 크면 나라 지키러 군대 갈 거고요. 세금도 꼬박꼬박 낼 거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조선의 왕도 하게 해야죠.

구 상무: (a) 너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일한: 네, 근데 저 아이는요…….

구 상무: (일한의 말을 끊으며) 영광이? 절대 못 올라가지.

일한: (b) 그럼 제가 기자들 있는 데 가서 김영광 결승전 못 올라 가게 하려고 제이엠(JM)에서 돈 주고 ㉠협박하고 매수한 거 다 얘기해도 되는 거죠?

㉠돈 봉투를 꺼내 바닥에 던지는 일한.

일한: 저는 매장시키세요. 영광이는 올라갑니다.

- 안호경 각본, 김성훈 연출, <마이 리틀 히어로>

15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
- ② 대사와 지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③ 현재 시제로 사건이 서술되어 있다.
- ④ 인물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된다.
- ⑤ 배우들의 연기를 통한 형상화를 전제로 한다.

16 (가)와 (나)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촌장'은 진실을 밝히려는 파수꾼 '다'에게 겁을 주고 있다.
- ② (가)의 파수꾼 '다'는 이리 떼가 허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촌장을 비판하고 있다.
- ③ (나)의 '유일한'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인 영광이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
- ④ (나)의 '김영광'은 다문화 가정의 소년으로, 뮤지컬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좋은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 ⑤ (나)의 '구 상무'는 '김영광'이 다문화 가정의 소년이라는 이유로 결승전에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17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파수꾼>에서 촌장은 권력 유지를 위해 가상의 적을 만들어 낸다. 촌장이 만들어 낸 거짓말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늘 긴장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촌장은 그 때문에 마을이 안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촌장은 진실이 밝혀지면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촌장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저지하고자 한다.

- ① '흰 구름'은 촌장의 권력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소재이다.
- ② '이리 떼'는 촌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가상의 적이다.
- ③ '양철 북'은 마을 사람들을 긴장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소재이다.
- ④ 파수꾼 '다'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으로, 촌장이 저지해야 할 대상이다.
- ⑤ 촌장은 '없는 걸 좀 두려워하는 것'이 마을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18 ㉠과 같은 기능을 하는 소재를 (가)에서 찾아 쓰시오.

서술형

19 ㉠이 의미하는 바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십시오. [4점]

조건

• 돈 봉투를 받은 것과 바닥에 던지는 것의 의미가 대비되게 서술할 것

20 ㉠과 ㉡에 들어갈 지시문으로 적절한 것은?

- | | | |
|---|----------|----------|
| | ㉠ | ㉡ |
| ① | 화를 내며 | 망설이며 |
| ② | 비웃으며 | 설레어하며 |
| ③ | 쏘아붙이며 | 단호한 표정으로 |
| ④ | 미소를 띠며 | 눈물을 흘리며 |
| ⑤ | 달래는 목소리로 | 속상해하며 |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어떤 날은 서로 말이 막히기도 했다. 대답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막혔다. 그러나 그는 늘 나보다 빠르게 이야기거리를 잘 찾아냈다. 오뉴월인데도 '꿩고기를 잘 먹느냐?'고도 묻고, '양복은 저고리를 먼저 입느냐 바지를 먼저 입느냐?'고도 묻고, '소와 말과 싸움을 붙이면 어느 것이 이기겠느냐?'는 등, 아무튼 그가 애깃거리를 취재하는 방면은 기상천외로 여간 범위가 넓지 않은 데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다. 하루는 나는 '평생 소원이 무엇이야?'고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그까짓 것쯤 얼른 대답하기는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면서 평생 소원은 자기도 원배달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남이 혼자 배달하기 힘들어서 한 이십 부 떼어 주는 것을 배달하고 월급이라고 원배달에게서 한 삼 월 받는 터라, 월급을 이십여 원을 받고 신문사 옷을 입고 방울을 차고 다니는 원배달이 제일 부럽노라 하였다. 그리고 방울만 차면 자기도 뛰어나며 빨리 돌 뿐 아니라 그 은행소에 다니는 집 개도 조금도 무서울 것이 없겠노라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럴 것 없이 아주 신문사 사장쯤 되었으면 원배달도 바랄 것 없고 그 은행소에 다니는 집 개도 상관할 바 없지 않겠느냐?' 한즉 그는 퐁그레지는 눈알을 한참 굴리며 생각하더니 '딴은 그렇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경난이 없어 거기까지는 바랄 생각도 못 하였다고 무릎을 치듯 가슴을 쳤다.

그러나 신문 사장은 이내 잊어버리고 원배달만 마음에 박혔던 듯, 하루는 바깥마당에서부터 뭐라고 떠들어 대며 들어왔다.

"이 선생님, 이 선생님 겹쇼? 아, 저도 내일부터 원배달이올시다. 오늘 밤만 자면입쇼……."

한다. 자세히 물어보니 성북동이 따로 한 구역이 되었는데, 자기가 맡게 되었으니까 내일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막 떨렁거리면서 올 테니 보라고 한다. 그리고 '사람이란 게 그러게 뭐든지 끝을 바라고 붙들어야 한다.'고 나에게 일러 주면서 신이 나서 돌아갔다. ㉠우리도 그가 원배달이 된 것이 좋은 친구가 큰 출세나 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진실로 즐거웠다. 어서 내일 저녁에 그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차고 와서 쫓러거리는 것을 보리라 하였다.

- 이태준, <달밤>

나 파수꾼 다,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망루를 향해 걸어간다. 나가 근심스럽게 쫓아간다.

나: 애야, 괜찮겠니? / 다: …… 네.

나: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넌 이리 떼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겁쟁이인데. 망루 위에 올라가서 앉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오지 않았니? 얼마나 큰 영광이야. 이 기회에 말이다, 넌 너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해야 한다. 알았지, 응?

촌장: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파수꾼 다는 망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마침내 부르짖는다.

다: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

파수꾼 가의 손이 번쩍 들려지며 그도 외친다.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 북을 두드린다. 북소리, 한동안 계속된다.

가: 북소리 중지! 이리 떼는 물러갔다!

촌장: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 떼뿐입니다. 이 망루는 영구히 유지되어야겠지요. 양철 북도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리의 습격 때까지 잠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하여 돌아가십시오. 가시거든 마을 광장에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수다쟁이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합시다. 그럼 어서 돌아가십시오. 이리떼가 여러분을 물어뜯으러 옵니다.

망루 위에서 파수꾼 다가 내려온다.

나: 난 네가 이렇게 용감해질 줄은 몰랐구나.

촌장: 고맙다. 정말 잘해 주었다.

나: 아냐, 난 몰랐던 건 아니었어. 넌 나에게 용감한 사람이 되라고 약속하질 않았니? 난 그때 이미 알아본 거야, 넌 꼭 훌륭한 파수꾼이 될 거라고.

촌장: 애, 나 좀 보자. (한갓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너한테는 안 됐지만, 넌 이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한다.

다: …… 네?

촌장: 마을엔 오지 마라.

다: (침묵)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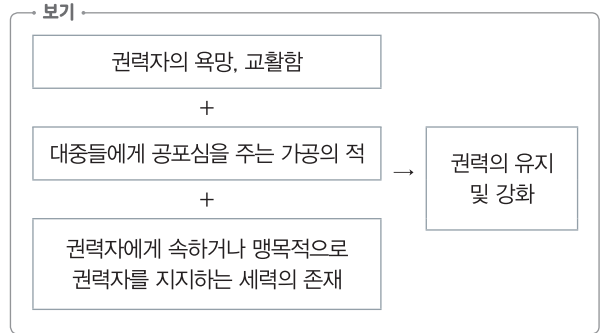
- 이강백 <파수꾼>

2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의 회상을 통해 황수건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 ② (가): '나'가 황수건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진술하여 갈등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나): 조명과 소품을 활용하여 파수꾼 '다'와 촌장의 대비되는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나): 파수꾼 '나'와 촌장의 대화를 통해 관객이 촌장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 ⑤ (나): 촌장에게 동조하는 파수꾼 '다'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관객이 주인공을 순응적이고 나약한 존재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난도

22 (나)에서 촌장의 권력이 유지되는 이유를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① 파수꾼 '다'는 권력자의 교활함을 폭로하는 자로 촌장의 권력을 위협하는 대상이다.
- ② 파수꾼 '나'는 촌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으로 촌장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존재이다.
- ③ 촌장은 이리 떼가 여러분을 물어뜯으러 온다고 말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고자 한다.
- ④ 수다쟁이 운반인은 촌장의 권력 유지를 위해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촌장은 그를 처벌하고자 한다.
- ⑤ 촌장이 망루가 영구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촌장의 권력에 대한 욕망이 계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23 <보기>는 (나)의 작가와 나는 가상 인터뷰의 내용이다. <보기>의 ㉠와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보기

기자: 반갑습니다. 작가님, 이 작품은 1970년대 정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는데 그 사실이 맞나요?

작가: 네, 맞습니다.

기자: 정치 현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작가: 네, 그래서 ㉠ 인 장치를 사용하여 제도적인 권력의 폭압성을 드러내고자 했지요.

기자: 그렇군요. 파수꾼 '다'는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만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데 '이리 떼'와 '흰 구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작가: 네, '이리 떼'는 ㉡ 을 의미하고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현실이자 밝혀져야 할 진실을 의미합니다.

24 ㉠에서 알 수 있는 황수견에 대한 ‘나’의 태도를 쓰시오.

25 <보기>에서 ㉡의 기능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무대에서 음향 효과는 대본상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극의 진전을 돕고, 감각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음향 효과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 시간적 배경이 바뀔을 드러낸다.
- ㉡ 인물의 암울한 정서를 드러낸다.
- ㉢ 변화를 향한 인물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 ㉣ 진실이 왜곡된 사회의 어두운 분위기를 나타낸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정사와 한 가마를 타고 삼류하(三流河)를 건너 냉정(冷井)에서 조반을 먹었다. 십여 리를 가다가 산기슭 하나를 돌아 나가니 태복(泰卜)이란 늙이 국궁(鞠躬)을 하고는 말 머리로 쫓아와서 땅에 엎드리고 큰 소리로,

㉠ “백탑(白塔)이 현신하였기에, 이에 아뢰나이다.”

한다. 태복은 정 진사의 마두이다.

산기슭이 가로막고 있어 백탑이 보이지 않기에 말을 급히 몰아 수십 보를 채 못 가서 겨우 산기슭을 벗어났는데, 안광이 어질어질하더니 홀연히 검고 동그란 물체가 오르락내리락한다.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이란 본래 의지하고 붙일 곳 없이 단지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이리저리 나다니는 존재라는 것을.

말을 세우고 사방을 둘러보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로구나.”

했더니 정 진사가,

“천지간에 이렇게 시야가 툭 터진 곳을 만나서는 별안간 통곡할 것을 생각하시니, 무슨 까닭입니까?”

하고 묻기에 나는,

“그렇긴 하나, 글썄. 천고의 영웅들이 잘 울고, 미인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나, 기껏 소리 없는 눈물이 두어 줄기 옷깃에 굴러떨어진 정도에 불과하였지, 그 울음소리가 천지 사이에 울려 퍼지고 가득 차서 마치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다는 얘기는 들어 보지 못했네.

사람들은 단지 인간의 칠정(七情) 중에서 오로지 슬픔만이 울음을 유발한다고 알고 있지, 칠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줄은 모르고 있네. 기쁨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 만하고, 분노가 극에 치밀면 울음이 날 만하며, 즐거움이 극에 이르면 울음이 날 만하고, 사랑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 만하며, 미움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 만하고, 욕심이 극에 달해도 울음이 날 만한 걸세. 막히고 억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 버리는 데에는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네.

통곡 소리는 천지간에 우레와 같아 지극한 감정에서 터져 나오고, 터져 나온 소리는 사리에 절실할 것이니 웃음소리와 뭐가 다르겠는가? 사람들이 태어나서 사정이나 형편이 이런 지극한 경우를 겪어 보지 못하고 칠정을 교묘하게 배치하여 슬픔에서 울음이 나온다고 짝을 맞추어 놓았다네. 그리하여 초상이 나서야 비로소 억지로 ‘아이고’ 하는 등의 소리를 질러 대지.

그러나 정말 칠정에서 느껴서 나오는 지극하고 진실한 통곡 소리는 천지 사이에 억누르고 참고 억제하여 감히 아무 장소에서나 터져 나오지 못하는 법이네. 한나라 때 가의(賈誼)는 적당한 통곡의 자리를 얻지 못해 울음을 참다가 견뎌 내지 못하고 갑자기 한나라 궁실인 선실(宣室)을 향해 한바탕 길게 울부짖었으니, 어찌 사람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 박지원 <통곡할 만한 자리>

나 물통을 들고 걸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텃밭을 일구시는 어떤 할아버지인데, 물을 주러 가시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다. 그 할아버지는 몸 반쪽이 마비되어 걷는 게 그리 자유롭지 못하시다. 성한 한쪽 팔로 물통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은 거의 몸부림에 가까우면서도 이상한 평화 같은 걸 느끼게 한다. 절뚝절뚝 몸이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물은 찰랑거리면서 그의 낡은 바지를 적시고 길 위에 쏟아져, 결국 반 통도 채 남지 않게 된다. 그렇게 몇 번씩 오가는 걸나는 때로는 끝듯이 지나가는 발소리로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마른 길 위에 휘청휘청 내고 간 젖은 길을 보고 알기도 한다.

그 젖은 길은 이내 말라 버리곤 했지만, 나는 그 길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길을 별로 보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나 역시 그 밭의 채소들처럼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기다리게 되었다. 반 통의 물을 잃어버린 그 발소리를.

물통을 나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한다. 내가 열 번 오가야 할 것을 그 할아버지는 스무 번 오가야 할 것이지만, 내가 이 채소들을 키우는 일도 그 할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안간힘 때문은 아닐까. 몸에 피가 돌지 않는 것처럼 문득문득 마음 한쪽이 굳어져 가는 걸 느끼면서, 절뚝거리면서, 그러면서도 남은 반 통의 물을 살아 있는 것들에게 쏟아붓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아니었을까.

- 나희덕 <반 통의 물>

2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설의적 의문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과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통해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
- ⑤ 자연과 인간의 삶을 대비하여 삶의 교훈을 도출하고 있다.

27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글쓴이는 장관을 보고 인간이 미미한 존재임을 깨닫고 있다.
- ② (가): 정 진사는 장관을 보고 우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③ (나): 글쓴이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생명을 향한 사랑을 발견하고 있다.
- ④ (나): 글쓴이는 할아버지가 물을 들고 가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
- ⑤ (나): 글쓴이는 몸 반쪽이 마비된 할아버지를 보며 진정한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다.

서술형

28 ㉠에 나타난 인물의 심정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4점]

조건

- ㉠에 쓰인 표현 방법을 언급할 것
- ㉠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쓸 것

고난도

29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보기

<작가의 개성>

내용면	새로운 발상, 개성적 사고
형식면	독특한 형식 참신하고 적절한 비유

- ① 통곡 소리를 우레에 비유하여 울음이 나오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글쓴이와 정 진사가 묻고 대답하는 독특한 형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한나라 가의의 고사를 인용하여, 울음이 기쁨에서 비롯된다는 창의적 사고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요동 별관의 장관을 보고 일반인들과는 다른 '통곡할 만한 자리'라는 새로운 발상을 하고 있다.
- ⑤ 울음이 슬픔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정에서 나올 수 있다는 개성적 사고를 하고 있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보기

<반통의 물>은 글쓴이가 일상적인 사건으로부터 인생의 깨달음을 얻은 내용을 수필로 쓴 작품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graph LR
      A((a. 뒷발 (생명체))) --- C((c. 길))
      C --- B((b. 물))
    
```

- ① '나'와 '할아버지'는 모두 a를 가꾸는 사람들이다.
- ② '반통의 물'은 b가 a에게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 ③ a를 가꾸기 위한 할아버지의 수고는 c를 통해 드러난다.
- ④ '할아버지'가 c를 오고가는 것이 발소리로 형상화되어 있다.
- ⑤ a가 자라기 위해서는 b를 가져와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대단원

최종실전 2회

문항 유형	문항수 × 배점	점수
객관식	11문항 × 3점	33점
	11문항 × 4점	44점
단답·서술형	1문항 × 3점	3점
	5문항 × 4점	20점
계	28문항	100점

※ 점수 표기가 없는 문항은 3점입니다.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나 “지금 여기 울기 좋은 장소가 저토록 넓으니, 나 또한 그대를 좇아 한바탕 울어야 마땅하겠는데, 칠정 가운데 어느 정에 감동받아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기에 나는,

“그건 갓난아이에게 물어보시게. 갓난아이가 처음 태어나 칠정 중 어느 정에 감동하여 우는지? 갓난아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해와 달을 보고, 그다음에 부모와 앞에 꼭 찬 친척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은 늙을 때까지 두 번 다시 없을 터이니, 슬퍼하거나 화를 낼 이치가 없을 것이고 응당 즐거워하고 웃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도리어 한없이 울어 대고 분노와 한이 가슴

에 꼭 찬 듯이 행동을 한단 말이야. 이를 두고, 신성하게 태어나거나 어리석고 평범하게 태어나거나 간에 사람은 모두 죽게 되어 있고, 살아서는 허물과 걱정 근심을 백방으로 겪게 되므로, 갓난아이는 자신이 태어난 것을 후회하여 먼저 울어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갓난아이의 본마음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이네.

갓난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캄캄하고 막히고 좁은 곳에서 웅크리고 부대끼다가 갑자기 넓은 곳으로 빠져나와 손과 발을 펴서 기지개를 켜고 마음과 생각이 확 트이게 되니, 어찌 참소리를 질러 억눌렀던 정을 다 크게 씻어 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갓난아이의 거짓과 조작이 없는 참소리를 응당 본받는다면, 금강산 비로봉에 올라 동해를 바라봄에 한바탕을 적당한 장소가 될 것이고, 황해도 장연(長淵)의 금모래 사장에 가도 한바탕 울 장소가 될 것이네. 지금 요동 들판에 임해서 여기부터 산해관(山海關)까지 일천이백 리가 도무지 사방에 한 점의 산이라고는 없이, 하늘 끝과 땅끝이 마치 아교로 붙인 듯, 실로 께맨 듯하고 고급의 비와 구름만이 창창하니, 여기가 바로 한바탕 울어 볼 장소가 아니겠는가?”

- 박지원, <통곡할 만한 자리>

0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4점]

- ① 유사한 사례를 열거하여 대상의 부정적 면모를 비판하고 있다.
- ②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변화 과정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하여 전달하려는 내용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 ④ 대상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대상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른 창의적 발상을 통해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02 <보기>에서 (가)의 표현상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찾아 묶은 것은? [4점]

- 보기
- ① 대상을 의인화하여 시상을 전개함.
 - ② 수미상관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드러냄.
 - ③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함.
 - ④ 시어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태도를 드러냄.

- ① a, b, c
- ② a, b, d
- ③ a, c, d
- ④ b, c, d
- ⑤ a, b, c, d

고난도

0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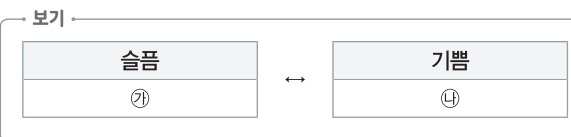
보기

문학은 궁극적으로 개인이나 공동체의 아름다움이나 진실과 같은 가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라는 형식으로 형상화하여 표현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문학 작품은 언어라는 형식, 가치 있는 주제라는 내용, 형상화된 표현이라는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다. 문학을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은 언어 형식과 형상화된 표현을 포괄하여 형식이란 것이다.

문학의 각 구성 요소들은 서로 긴밀하게 결합하여 하나의 문학 작품 속에 녹아 있는데, 이를 유기적 관계라고 한다.

- ① (가)는 눈 오는 날의 아름다움이라는 내용을 시라는 형식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 ②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통곡이 의미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인간의 철정을 다스리는 법을 수필이라는 형식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공동체의 아름다움이라는 내용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형상화하고 있다.

0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② ㉠은 ㉡의 이기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③ ㉠은 ㉡에게 슬픔과 기다림에 대해 가르쳐 주고자 한다.
- ④ ㉠은 ㉡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 ⑤ ㉠은 ㉡가 지닌 긍정적 모습과 부정적 모습을 모두 지적하고 있다.

05 <보기>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나)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은/는 비좁고 폐쇄된 곳을 의미하며, 박지원에게 있어 조선을 비유한 말이다. 실학자인 박지원이 북학파로서 성리학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은/는 조선 지식인 사회의 폐쇄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 ‘넓은 곳’은 청나라의 새로운 문물과 넓은 땅을 비유한 것으로 ()와/과 대비되는 공간이다.

서술형

06 ㉠과 ㉡의 상징적 의미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4점]

조건

- ㉠과 ㉡의 대비적인 의미가 드러나도록 서술할 것

[07~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런 텀쇼, 선생님?”
 “왜 그러우?”
 “삼산학교에 말씀예요, 그 제 대신 들어온 급사가 저보다 근력이 세게 생겼습죠?”
 “나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소.”
 하니 그는 은근한 말소리로 히죽거리며,
 “제가 거길 또 들어가 불량급쇼, 운동을 합쇼.”
 한다.
 “어떻게 운동을 하오?”
 “그까짓 거 날마다 사무실로 갑쇼. 다시 써 달라고 졸라 댁쇼. 아, 그랬더니 새 급사란 녀석이 저보다 크기도 무척 큰텀쇼, 이 녀석이 막 불근뎁니다그러. 그래 한번 짬을 해야 할 텀쇼, 그 녀석이 근력이 얼마나 센지 알아야 텀벼들 텀뎁쇼, 허…….”
 ㉠ “그렇지, 멋모르고 대들었다 매만 맞지.”
 하니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또 은근한 말을 한다.
 “그래쎄쇼, 잊저녁엔 큰 돌멩이 하나를 굴러다 삼산학교 대문에다 났습쇼. 그러구 오늘 아침에 가 보니깐 없어졌는텀쇼, 이 녀석이 나처럼 억지루 굴러다 버렸는지, 뻥쩍 들어다 버렸는지 그만 못 봤거든입쇼, 제길…….”
 하고 머리를 긁는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얼 생각한 듯 손뼉을 탁 치더니,

“그런데쇼, 제가 온 건입쇼, 덕에선 우두를 넣지 마시라구 왔 습쇼.”

한다.

“우두를 왜 넣지 말란 말이오?”

한죽,

“요즘 마마가 다닌다구 모두 우두들을 넣는데쇼, 우두를 넣 으면 사람이 근력이 없어지는 법인데쇼.”

하고 자기 팔을 걸어 올려 우두 자리를 보이면서,

“이걸 봅쇼, 저두 우두를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근력이 줄었 습쇼.”

한다.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준다고 누가 그러디까?”

물으니 그는 싱글거리며,

“아, 내가 생각해 냈습쇼.”

한다.

“왜 그렇소?”

하고 캐니,

“뭘…… 저 아래 윤금보라고 있는데 기운이 장산데쇼. 아 삼 산학교 그 녀석두 우두만 넣었다면 그까짓 것 무서울 것 없는 데쇼, 그걸 모르겠거든입쇼…….”

한다. 나는,

㉠ “그렇게 용한 생각을 하고 일러 주러 왔으니 아주 고맙소.”

하였다. 그는 좋아서 병긱거리며 머리를 긁었다.

— 이태준, <달밤>

나 파수꾼 나가 들어온다.

나: 또, 헛치었습니다. 이리는 워낙 교활해서요, 친 것 같아도 가 보면 달아나고 없어요.

촌장: 다음에는 꼭 잡히겠지요.

나: 미안합니다. 이번에 잡았더라면 그 껍질을 촌장님께 선사하 고 싶었는데…….

촌장: 받은 거나 다름없이 감사합니다.

나: (촌장에게 안겨 있는 다를 가리키며) 그 앤 지금 몹시 아프니 다.

촌장: 네. 열이 있는 것 같군요.

나: 간밤에 담요를 덮지 않아서 병이 났어요.

촌장: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씩은 앓는 병이겠지요.

나: 내 잘못이었어요. 담요를 꼭 덮어 줘야 하는 건데. (다에게) 애야, 난 널 좋아해. 아픈 것 빨리 좀 나아 주렴.

다: (힘없이 웃으며) 고마워요…….

나: (관객석 쪽으로 돌아서다가, 흠칫 놀라며) 웬 사람들이 이러 게 몰려오죠?

촌장: 마을 사람들이죠.

나: 마을 사람들이요?

촌장: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빙긱 웃고 있는 식량 운반인, 이 애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리 떼인 지 아니면 흰 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 들어 봅시다.

파수꾼 다,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망루를 향해 걸어간다. 나 가 근심스럽게 쫓아간다.

나: 애야, 괜찮겠니?

다: …… 네.

나: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넌 이리 떼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겁쟁이인데. 망루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오지 않았니?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기회에 말이다, 넌 너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 해야 한다. 알았지, 응?

촌장: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파수꾼 다는 망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마침내 부르짖는다.

다: ㉠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

— 이강백, <파수꾼>

고난도

07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4점]

- ①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상징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반어적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인물의 가치관을 드러내 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 인물이 겪는 시대적 고통을 드러 내고 있다.
- ⑤ 우화적 기법을 사용하여 작가의 의도를 작품의 이면에 숨기고 있다.

08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황수건은 삼산학교에 복직하기를 바라고 있다.
- ② 황수건은 날마다 삼산학교 사무실을 찾아가고 있다.
- ③ 황수건은 우두 점종이 해롭다는 이야기를 ‘나’에게 말해 주러 왔다.
- ④ 새로 온 급사는 황수건이 가져다 둔 돌맹이를 번쩍 들어 다른 곳으로 치웠다.
- ⑤ 황수건은 새 급사의 근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 돌맹이를 삼산학교 앞에 가져다 두었다.

고난도

09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4점]

보기

<달밤>은 황수건이라는 못난이의 각박한 세상살이와 실패를 곁에서 지켜 보는 관찰자 '나'의 시선을 통해 그리고 있다. 일제 강점기의 각박한 현실이 암시되어 시대적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인간적인 정이 사라져 가는 현대 사회의 세태에 대한 문제를 느끼게 한다.

- ① 윤금보를 걱정하는 황수건의 모습을 통해 인간애를 중시하는 작가의 의식을 알 수 있다.
- ② '나'가 우두 집중을 하고 온 황수건을 어리석게 여기는 모습을 통해 인물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다.
- ③ 황수건이 삼산학교 급사와 싸우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 무능력함을 극복하려는 인물의 노력을 볼 수 있다.
- ④ 황수건의 모습을 희화화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황수건과 같은 인물이 살아가기 어려운 냉혹한 현실을 엿볼 수 있다.
- ⑤ 황수건이 삼산학교의 급사 자리에서 쫓겨난 것을 통해 소외된 인물이 살기 어려운 당대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10 (나)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파수꾼 '나'는 촌장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한다.
- ② 파수꾼 '나'는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 한다.
- ③ 파수꾼 '다'는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
- ④ 촌장은 식량 운반인을 이용하여 파수꾼 '다'가 거짓말에 동참하게 하고 있다.
- ⑤ 촌장은 파수꾼 '다'의 갈등을 미숙한 젊은 시절의 혈기로 낮추어 평가하고 있다.

서술형

11 ㉠과 ㉡을 통해 알 수 있는 황수건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서술하시오. [4점]

조건

- ㉠과 ㉡을 근거로 삼아 서술할 것

서술형

12 <보기>를 참고하여 ㉢가 의미하는 바를 서술하시오. [4점]

보기

극의 초반에 파수꾼 '다'는 이리 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파수꾼 '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려고 하나, 촌장은 이를 내일 알리자고 회유한다.

조건

- 인물의 태도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할 것

[13~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촌장: 뭐라고?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킨 후에 웃으면서) 사실 우습기도 해. 이리 떼? 그게 뭐냐? 있지도 않은 그걸 이 황야에 가득 길러 놓고, 마을엔 가서 울타리를 둘렀다. 망루도 세웠고, 양철 북도 두들기고,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기도 한다. 아하,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른다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다.

다: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망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촌장: ㉠그래, 외치마.

다: 아, 이젠 됐어요!

촌장: (혼잣말처럼) 그러나 잘될까? 흰 구름, 허공에 뜬 그것만 가지고 마을이 잘 유지될까? 오히려 이리 떼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몰라.

다: 뭘 망설이시죠?

촌장: 아냐,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돼서 그래. (온화한 얼굴에서 혀가 날름 나왔다가 들어간다.) 지금 사람들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잖니? 망루를 부순 다음엔 속은 것에 더욱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지 이리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흰 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다: 살인이라고요?

촌장: 그래, 살인이지. (난폭하게) 생각해 보렴, 도끼에 찍힌 내 모습을.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다. 끔찍해. 애,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다: 아니에요, 그건!

촌장: 아니라고?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니?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 떼를 만들었던가, 그걸 알려 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해 줄 거야.

다: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촌장: 허나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넌 흰 구름이라 외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 테고, 그럼

나는, 나는……. (은밀한 목소리로) 애, 네가 본 그 흰 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다: 아뇨.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촌장: 그것 봐. 넌 내 피를 보고 싶은 거야.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흰 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하, 넌 네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다: (창백해지며) 그건, 그건 아니에요!

촌장: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a**(괴로워하는 파수꾼 다를 껴안으며) 오늘은 나에게 말거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 구름이라 외칠 테니.

- 이강백, <파수꾼>

나 #112 대기실

일한: **c**저 결승전 포기하겠습니다.

조용히 얘기하는 일한.

일한: 저는 자격이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이 방송에 학력을 위조했습니다. 맨해튼이라는 학교는 가 본 적도 없고, 또 라스폰 트라얀 선생은 제 스승도 아니고 그냥 제가 존경하는 작곡가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 아닙니다. (잠시 침묵) 다 변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다 가짜입니다. 하지만 영광이는 아니에요. 그 아이가 무대 위에 못 올라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일한을 돌려세우는 구 상무.

구 상무: 야, 유일한!

일한: 누구보다 노력했고, 누구보다 재능도 많고, 지금 시청자들도 저 아이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요? 재도 크면 나라 지키러 군대 갈 거고요. 세금도 꼬박꼬박 낼 거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조선의 왕도 하게 해야죠.

구 상무: (쏘아붙이며) 너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일한: 네, 근데 저 아이는요…….

구 상무: (일한의 말을 끊으며) 영광이? 절대 못 올라가지.

일한: (단호한 표정으로) 그럼 제가 기자들 있는 데 가서 김영광 결승전 못 올라 가게 하려고 제이엠(JM)에서 돈 주고 협박하고 매수한 거 다 얘기해도 되는 거죠?

돈 봉투를 꺼내 바닥에 던지는 일한.

일한: **b**저는 매장시키세요. 영광이는 올라갑니다.

- 안호경 각본, 김성훈 연출, <마이 리틀 히어로>

13 (가)에 나타난 촌장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파수꾼 '다'를 설득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
- ② 파수꾼 '다'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 ③ 파수꾼 '다'가 얻을 수 있는 보상을 제시하며 상대를 회유하고 있다.
- ④ 파수꾼 '다'의 주장이 마을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 ⑤ 파수꾼 '다'를 회유하기 위해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보기
촌장은 이해심이 많은 태도를 보이고 침착하고 정중해 보이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 태도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위선이 드러난다.

- ① 파수꾼 '다'에게 '난폭하게' 말을 하는 모습은 촌장의 정중한 모습에 해당한다.
- ② 마을이 잘 유지될지 걱정하는 모습은 촌장을 이해심이 많은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
- ③ 괴로워하는 파수꾼 '다'를 껴안는 촌장의 행동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위선적인 모습에 해당한다.
- ④ 촌장이 파수꾼 '다'에게 약속을 하는 모습은 진실을 왜곡함으로써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이다.
- ⑤ '온화한 얼굴에서 혀가 날름 나왔다가 들어가'는 촌장의 모습은 겉으로는 이해심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활한 촌장의 이중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15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특정 인물의 독백을 활용하여 인물의 내적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작품 바깥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 변화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인물의 심리를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른 공간의 인물들이 보이는 상이한 반응을 제시하고 있다.

16 <보기>는 (나)의 앞부분의 줄거리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음악 감독 '유일한'은 규모가 작은 뮤지컬을 전전하던 중 우연한 기회로 뮤지컬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고, 다문화 가정의 소년 '영광'과 팀을 이루게 된다. 노래 실력이 뛰어난 영광은 시청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된다. 그러나 제작자는 다문화 가정의 소년인 영광이 주인공이 될 것을 꺼려하여, 일한의 거짓 학력을 빌미로 삼아 그에게 결승전을 포기하라고 강요한다.

- ① 일한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② 일한은 구 상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다.
- ③ 구 상무는 다문화 가정 관련 뮤지컬 제작자이다.
- ④ 구 상무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 편견을 지닌 인물이다.
- ⑤ 영광은 자신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인 것을 숨기고 오디션에 참가했다.

17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4점]

- ① ㉠은 동조의 의미를, ㉡은 비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
- ② ㉠은 상대를 위로하기 위해, ㉡은 상대를 돕기 위해 하는 말이다.
- ③ ㉠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하는 말이다.
- ④ ㉠과 ㉡은 모두 거짓으로 하는 말이다.
- ⑤ ㉠과 ㉡은 모두 개인의 심리적인 갈등 끝에 나온 말이다.

18 ㉢에서 파수꾼 '다'가 괴로워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 ① 자기 때문에 촌장이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 ② 촌장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③ 자기가 본 것도 믿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 ④ 당장은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⑤ 마을 사람들이 촌장에게 해명할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술형

19 ㉣에 드러난 인물의 태도를 서술하시오. [4점]

조건

- 처음 오디션에 참가했을 때와 비교하여 서술할 것

[20~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고쓰카이 노릇을 합쇼? 밀천만 있으면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장사를 할 터덱쇼.”

한다.

“무슨 장사?”

“아, 방학될 때까지 차미 장사도 하급쇼, 가을부터는 군밤 장사, 왜떡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 합쇼. **㉠삼산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겠쇼. 저를 선생들보다 낮게 치는덱쇼.**”

한다.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주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급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씬하지 않았다.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밀천만 가 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다는 것이었다.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벵긋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쇼.”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째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멍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 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 나가 매를 말리고 포뭇값을 물어 주었다. 포뭇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 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어제다. 문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길을 깎아 냈다.

그런데 포도원계를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맑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 케…… 와 나…… 미다가 다메이…… 키…… 카…….”

를 부르며 큰길에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알은채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홉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이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퍽퍽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 이태준 <달밤>

나 밭 바로 옆에는 우물이나 수도가 없다. 조금 걸어가야 그 마을 사람들에게 농수를 공급하는 수로가 있는데, 호스나 관으로 연결하기에는 거리가 제법 된다. 또 그러기에는 작은 밭에 너무 수선스러운 일인 것 같아 그냥 물을 한 통 한 통 길어다 주었다. 푸성귀들을 키우는 것은 물이 아니라 농부의 발소리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가 보다. ㉡우리 밭을 흡족하게 적시려면 수로까지 적어도 열 번은 왕복을 해야 하니 그것도 만만치 않은 노릇이었다.

물통을 들고 걸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텃밭을 일구시는 어떤 할아버지인데, 물을 주러 가시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다. 그 할아버지는 몸 반쪽이 마비되어 걷는 게 그리 자유롭지 못하시다. 성한 한쪽 팔로 물통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은 거의 몸부림에 가까우면서도 이상한 평화 같은 걸 느끼게 한다. ㉢절뚝절뚝 몸이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물은 찰랑거리면서 그의 낡은 바지를 적시고 길 위에 쏟아져, 결국 반 통도 채 남지 않게 된다. 그렇게 몇 번씩 오가는 걸 나는 때로는 끝듯이 지나가는 발소리로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마른 길 위에 휘청휘청 내고 간 젖은 길을 보고 알기도 한다.

그 젖은 길은 이내 말라 버리곤 했지만, 나는 그 길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길을 별로 보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나 역시 그 밭의 채소들처럼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기다리게 되었다. 반 통의 물을 잃어버린 그 발소리를.

물통을 나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한다. 내가 열 번 오

가야 할 것을 그 할아버지는 스무 번 오가야 할 것이지만, 내가 이 채소들을 키우는 일도 그 할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안간힘 때문은 아닐까. 몸에 피가 돌지 않는 것처럼 문득문득 마음 한쪽이 굳어져 가는 걸 느끼면서, 절뚝거리면서, 그러면서도 남은 반 통의 물을 살아 있는 것들에게 쏟아붓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아니었을까.

- 나희덕 <반 통의 물>

2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4점]

- ① 우화를 제시하여 글쓴이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대상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대상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고 새롭게 발견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대비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보기

<달밤>은 지식인 화자가 무능력하고 소외된 인물에게 연민과 인간적 정을 느끼는 모습을 통해 인간애를 중시하는 작가의 의식을 알 수 있고, 나아가 그런 인물이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을 통해 당대 사회의 냉혹한 모습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 ① ‘나’는 황수건이 가져온 포도를 먹으며 그에게 인간적인 정을 느낀다.
- ② 황수건의 아내가 도망간 상황은 인물이 겪는 삶의 어려움을 보여 준다.
- ③ 황수건은 지식인 서술자인 ‘나’가 연민의 정을 느끼는 무능력한 인물에 해당한다.
- ④ 황수건을 좋아해 주는 삼산학교 학생들의 모습에서 인간적인 정을 느낄 수 있다.
- ⑤ 참외 장사에 실패한 황수건의 모습은 어수룩한 인물이 살아가기에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 준다.

22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글쓴이와 할아버지의 대화를 통해 농사일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글쓴이가 할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게을렀던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 ③ 글쓴이가 할아버지와 추억을 떠올리며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글쓴이가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와 만났던 경험을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비판하고 있다.
- ⑤ 글쓴이가 할아버지의 모습을 관찰한 경험을 통해 생명을 돌보고 가꾸는 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서술형

23 <보기>를 참고하여 ㉠에서 알 수 있는 황수건의 심정을 서술하시오. [4점]

보기

황수건이 부르는 노래는 당시 유행했던 일본 가요의 한 구절로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라는 뜻이다.

조건

- 황수건이 노래를 부르면서 동시에 하고 있는 행동을 언급하여 서술할 것

2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삼산학교 학생들이 자신을 많이 좋아한다고 말하는 데에서 황수건의 허풍스러운 성격을 알 수 있다.
- ② ㉡: 장사를 해 보고 싶다는 황수건의 말에 돈을 주는 ‘나’의 모습에서 황수건에 대한 ‘나’의 애정이 드러난다.
- ③ ㉢: 떡살이 쥐어 잡혀가는데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황수건이 가져온 포도가 흠쳐온 것임을 알 수 있다.
- ④ ㉣: 밭을 흠족하게 적시기 위해서는 수로를 여러 번 왕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밭을 제대로 가꾸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⑤ ㉤: 할아버지가 들고 오는 물이 반밖에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 있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말을 세우고 사방을 둘러보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로구나.”

했더니 정 진사가,

㉠ “천지간에 이렇게 시야가 탁 터진 곳을 만나서는 별안간 통곡할 것을 생각하시니, 무슨 까닭입니까?”

하고 묻기에 나는,

“그렇긴 하나, 글썄. 천고의 영웅들이 잘 울고, 미인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나, 기껏 소리 없는 눈물이 두어 줄기 옷깃에 굴러떨어진 정도에 불과하였지, 그 울음소리가 천지 사이에 울려 퍼지고 가득 차서 마치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다는 얘기는 들어 보지 못했네.

사람들은 단지 인간의 칠정(七情) 중에서 오로지 슬픔만이 울음을 유발한다고 알고 있지, 칠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줄은 모르고 있네. 기쁨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 만하고, 분노가 극에 치밀면 울음이 날 만하며, 즐거움이 극에 이르면 울음이 날 만하고, 사랑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 만하며, 미움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 만하고, 욕심이 극에 달해도 울음이 날 만한 걸세. 막히고 억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 버리는 데에는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네.

통곡 소리는 천지간에 우레와 같아 지극한 감정에서 터져 나오고, 터져 나온 소리는 사리에 절실할 것이니 웃음소리와 뭐가 다르겠는가? 사람들이 태어나서 사정이나 형편이 이런 지극한 경우를 겪어 보지 못하고 칠정을 교묘하게 배치하여 슬픔에서 울음이 나온다고 짝을 맞추어 놓았다네. 그리하여 초상이 나서야 비로소 억지로 ‘아이고’ 하는 등의 소리를 질러 대지.

그러나 정말 칠정에서 느껴서 나오는 지극하고 진실한 통곡 소리는 천지 사이에 억누르고 참고 억제하여 감히 아무 장소에서나 터져 나오지 못하는 법이네. 한나라 때 가의(賈誼)는 적당한 통곡의 자리를 얻지 못해 울음을 참다가 견뎌 내지 못하고 갑자기 한나라 궁실인 선실(宣室)을 향해 한바탕 길게 울부짖었으니, 어찌 사람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 박지원, <통곡할 만한 자리>

나 어의가 엮드려 아뢰었다.

㉡ “평국의 맥을 보오니 남자의 맥이 아니오니 이상한 일이옵니다.”

천자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평국이 여자라면 어찌 전장에 나아가 적병 십만 군을 소멸하고 왔겠는가? 평국의 얼굴이 복숭아꽃 빛이요 몸이 약하므로 혹 미심쩍은 점이 있거니와 아직은 누설하지 말라.”

그러시고는 내시를 시켜 자주 문병하도록 하셨다.

이때 평국은 병세가 차차 나아졌다. 생각하기를,
 ‘어의가 나의 맥을 짚었으니 나의 본색이 탄로 날 것이다. 이
 제는 할 수 없이 여자 옷으로 바꿔 입고 규중에 몸을 감추어
 세월을 보내는 것이 옳겠다.’

하고, 즉시 남자 옷을 벗고는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서 부모를
 뵈었다. 그리고 흐느끼니 두 뺨에 두 줄기 눈물이 줄줄 흘렀다.

이에 부모도 눈물을 흘리며 위로했다. 세월이 슬픔에 잠겨 우
 는 모습은 추구월 연꽃이 가랑비를 머금은 듯, 초승달이 구름
 에 잠긴 듯했으며 아름다우며 침착한 태도는 당대의 제일이었
 다.

세월이 천자께 상소를 올리자, 임금께서 보셨는데 상소의 내
 용은 다음과 같았다.

‘한림학사 겸 대원수 좌승상 청주후 평국은 머리를 조아려 백
 번 절하고 아뢰옵나이다. 신첩이 다섯 살이 되기 전에 장사랑
 의 난에 부모를 잃었사옵나이다. 그리고 도적 맹길의 환을 만나
 물속의 외로운 냇이 될 뻔한 것을 여공의 덕으로 살아났사옵
 나이다. 오직 한 가지 생각을 했으니, 곧 여자의 행실을 해서는
 규중에서 늙어 부모의 해골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행실을 버리고 남자의 옷을 입어 황상을 속이
 옳고 조정에 들었사오니 신첩의 죄는 만 번을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에 감히 아뢰어 죄를 기다리옵고 내려 주셨던 유
 지(諭旨)와 인수(印綬)를 올리옵나이다. 임금을 속인 죄를 물
 어 신첩을 속히 처참하옵소서.’

천자께서 글을 보시고 용상(龍床)을 치며 말씀하셨다.
 “평국을 누가 여자로 보았으리요? 고금에 없는 일이다. 천
 하가 비록 넓으나 문무(文武)를 다 갖추어 갈충보국(竭忠報
 國)하고, 충성과 효도를 다하며 조정 밖으로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될 만한 재주를 가진 이는 남자 중에
 도 없을 것이다. 평국이 비록 여자지만 그 벼슬을 어찌 거
 두겠는가?”

— 작자 미상, <홍계월전>

25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① (가): 글쓴이는 정 진사와의 문답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가): 한나라 때 가의의 고사를 인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 남성보다 우월한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④ (나): 인물의 발화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나):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여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대상	㉠	㉡
㉠	천지간에 이런 풍경을 만나니 경이롭다.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다.
㉡	슬플 때만 운다.	칠정이 극에 달하면 운다.

- ① ㉠은 정 진사의 관점이다.
- ② ㉠은 글쓴이의 관점이다.
- ③ ㉡은 시야가 특 터진 곳이다.
- ④ ㉡은 울음이다.
- ⑤ ㉠은 창의적 사고에, ㉡은 일반적 사고에 해당한다.

27 <보기>는 (가)를 읽고 쓴 한시이다. <보기>의 화자가 (가)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보기	
천추*의 커다란 울음터라니	千秋大哭場
재미난 그 비유 신묘도 해라.	戲喻仍妙詮
갓 태어난 핏덩이 어린아이가	譬之初生兒
세상 나와 우는 것에 비유하였네.	出世而啼先

* 천추(千秋): 오래고 긴 세월, 또는 먼 미래
 — 김정희, <요야>

- ① 반어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이중적 속성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 ② 설득력 있는 예시를 통해 대상의 본질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 ③ 풍자의 기법을 통해 부정적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 ④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참신하게 나타냈기 때문이다.
- ⑤ 점층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이다.

28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① ㉠은 글쓴이의 말에 대한 반박에 해당된다.
- ② ㉡을 통해 평국이 여자임을 알 수 있다.
- ③ ㉠은 의문문으로, ㉡은 평서문으로 진술되었다.
- ④ ㉠과 ㉡ 모두 의아함에서 나온 말이다.
- ⑤ ㉠과 ㉡ 모두 청자를 전제로 한 말이다.



바른답 알찬풀이

1 / 문학의 빛깔

01 서정 갈래의 이해

우리학교 필수기출  p. 8

01 ⑤ 02 다, 르 03 ⑤ 04 ④ 05 ④ 06 ⑤ 07 ①

- 01** 이 시는 화자인 '나(슬픔)'가 청자인 '너(기쁨)'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설의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② 참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여 문장의 의미를 강화하는 반어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애상적 분위기가 느껴지지만, '-겠다'라는 의지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④ 기쁨·슬픔·놀라움과 같은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영탄적 진술은 사용되지 않았다.
- 02** 이 시는 슬픔과 기쁨이라는 대립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으며(ㄷ), 'ㄴ' 음운과 4음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ㄹ).
- 03** 17행 '함께 걸겠다.'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인 '나(슬픔)'는 청자인 '너(기쁨)'와 함께 가고자 한다. 시인은 이를 통해 슬픔과 기쁨의 가치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 04** '함박눈'은 가진 사람들에게는 풍요롭고 포근한 존재이지만, 할머니와 동사자 같이 소외된 이들에게는 고통을 주는 존재이다.
- 05** '눈 그친 눈길'은 소외된 사람들이 눈으로 인해 추위와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평등한 공간으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나'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오답 풀이 ① ㉠에서 '어둠'은 어려운 상황을, '나'가 '너'를 부르는 것은 '나'가 '너'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② ㉡은 '나'가 '너'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이를 외면한 '너'의 태도를 형상화하고 있다.
 ③ ㉢의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은 타인의 슬픔에 공감할 줄 모르는 모습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⑤ ㉤에는 '너'가 슬픔의 가치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며 함께 하겠다는 '나'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 06**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에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 있지만, 그들에게 기쁨을 주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쁨에게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알려 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07** 이 시의 화자는 타인의 슬픔에 공감할 줄 모르는 이

기적인 '너(기쁨)'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태도를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것을 의미하는 관조적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

02 서사 갈래의 이해

우리학교 필수기출  p. 13

01 ① 02 ⑤ 03 '뻑뻑 깎은 머리로되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으로 골이 크다. 그런 데다 옆으로 보니 짱구 대가리다.' '손과 팔목은 머리에 비겨 반비례로 작고 가느다랗다.' 04 ③ 05 "개 그까짓 거 두지 마십시오." 06 ① 07 ⑤ 08 긍정적, 우호적 태도 09 ④ 10 새로 채용된 신문 배달부에게 시기심과 질투심을 느끼고 있다. 11 새 급사의 근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12 ② 13 ㉡, ㉣ 14 ⑤ 15 ④ 16 ㉢: 달밤, ㉤: 서정, ㉥: 여운, ㉦: 이입

- 01** '나'와 '황수건'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황수건과 '나'의 만남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보여 주고 있다.
 ③ 과거형의 시제를 활용하여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고 있다.
 ④ 황수건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나'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⑤ 이 글의 서술자는 '나'이다. 어른인 '나'가 황수건이라는 인물을 만난 일을 제시하고 있을 뿐, 어린 시절의 서술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 02** "아, 이 뒷동네 은행소에 댕기는 집엔입쇼, 망아지만한 개가 있는텨쇼, 아, 신문을 배달할 수가 있어얍쇼."에서 황수건은 망아지가 아니라 신문을 배달하는 집의 개가 텨면서 곤혹을 치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3** '나'는 황수건의 뻑뻑 깎은 큰 짱구 대가리와, 머리에 비해 작고 가느다란 손과 팔목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황수건의 외양을 묘사함으로써 그가 일반적이지 않은 인물임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 04** ㉤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황수건의 성격이 드러난 부분으로, 황수건이 남을 비판하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 05** 황수건은 개가 있는 집은 신문 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나'에게 개를 기르지 말 것을 제안하고 있다.
- 06** '아이들이 노랑 수건이라고 놀려서'에서 황수건의 별명이 노랑 수건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저희 집엔 양친과 형님 내외와 조카 하나와 저희 내외까지 식구가 일곱'에서 황수건에게는 자식이 없음은 알 수 있다.

- ③ 황수건은 신문사 보조 배달원으로 일해 왔으며, 그는 원배달이 되는 것이 소원이다.
- ④ 황수건은 '나'의 집을 알고 오는데도 신문 배달을 늦게 왔다.
- ⑤ 황수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이야기하는 인물이다.

07 [A]에서는 황수건이라는 인물의 삶에 대한 정보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는 '나'가 황수건에게 들은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논평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인물의 성격 변화 양상도 드러나 있지 않다.

② [A]에는 황수건의 직업과 가족, 별명 등에 관한 이야기가 제시되어 있으며, 동일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성북동'이라는 특정 지역이 배경으로 제시되었으나, 공간의 상징적 의미는 드러나지 않는다.

④ 서술자인 '나'가 황수건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으나, 주관적으로 전달하여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지는 않다.

08 황수건은 사람들로부터 모자라다고 멸시를 받는 인물이지만, '나'는 그가 열심히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와의 대화 후에 기분이 거뜨해진다고 하며 황수건에게 긍정적(우호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09 '나'(㉠)는 우리집 식구들(㉡)이 뭐라고 하거나 황수건(㉢)과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다고 하였다.

10 신문 보조 배달원 일을 하던 황수건은 구역이 나뉘에 따라 원배달이 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었지만, 다른 사람이 원배달이 되고 그로 인해 황수건은 보조 배달일도 끊기고 말았다. 그래서 황수건은 새로 채용된 신문 배달부를 시기하여 그가 잘못을 저지르기만을 바라고 있다.

11 황수건은 삼산학교에 새로 들어온 급사의 근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 무거운 돌멩이를 삼산학교 대문에 가져다 놓았다.

12 ㉠는 황수건이 웃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반가웠다'에 황수건에 대한 '나'의 호감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③ 황수건은 우두를 넣지 말라는 말을 하기 위해 '나'를 찾아왔다.

④ 우두를 넣지 말라는 제안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황수건 스스로가 생각해 낸 자의적인 것임이 나타나 있다.

⑤ 우두를 넣지 말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 '나'에게 황수건은 '윤금보' 이야기를 꺼내며 동문서답하고 있다.

13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이야기 속 인물(㉡)로서, 주인공인 황수건의 주변 인물이 되어 사건을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다.

14 작가는 1930년대 성북동을 배경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황수건의 모습을 통해 가난한 조선인들의 삶의 고

달픔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 일본인과 조선인을 차별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이 글에 일본인에 의해 착취당하는 조선인의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나'는 사대문 안에서 성북동으로 이사 온 인물이므로 사대문 안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볼 수 없다.

④ '나'가 조건 없이 황수건에게 삼 원을 빌려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나'는 경제적으로 소외당한 인물이 아니다.

15 '나'는 황수건이 '나'에게 빌려간 삼 원을 갚지도 못하고 훔친 포도를 '나'에게 가져다주는 등 자신과 마주치면 무안해할 것을 떠올리며 그를 배려하여 몸을 숨기고 있다.

16 이 글의 배경인 달밤은 황수건의 불우한 상황과 비극적 결말을 서정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줌으로써 독자에게 깊은 여운을 주고 있다.

03 극 갈래의 이해

우리학교 필수기출

p. 20

- 01** ⑤ **02** ④ **03** 망루 너머 황야에 무서운 이리 떼는 없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흰 구름뿐이다. **04** ③ **05** ② **06** ④ **07** 마을의 질서와 체제 유지 **08** ② **09** ② **10** ① **11** ⑤ **12** 촌장의 회유에 넘어가 권력에 순응하게 됨. **13** ④ **14** ③

01 “이것 내가 보낸 거니?”라는 촌장의 물음에 “네, 촌장님”이라고 답하는 것에서 파수꾼 '다'가 촌장에게 편지를 보냈음을 알 수 있다. 파수꾼 '다'는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뿐'이라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 촌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오답 풀이 ①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라는 촌장의 말로 보아 촌장은 이리 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② 촌장이 먼저 망루를 찾아와서 마을 사람들이 오고 있음을 알려 주었다.

③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 본 모양이다.”라는 촌장의 말을 통해 편지 운반인이 편지를 읽어 보고 촌장에게 전달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라는 촌장의 말을 통해 촌장이 망루에 오는 마을 사람들을 불청객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촌장의 정중한 태도는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신의 속내를 감추기 위한 수단이다.

03 편지의 내용을 읽은 운반인이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뿐.”이라고 떠벌리고 다닌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04 ‘말기’는 진실이 은폐되고 왜곡되는 곳에서 자라는 것

으로, 부정한 일에 대한 대가이자 권력자들이 독점하는 특권을 의미한다.

05 '이리 떼, 망루, 양철 북'과 같은 상징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우화적 기법을 이용하여 부정적 현실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③ 이 글의 앞부분에서 촌장의 복장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제시된 부분에서는 인물들의 복장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인물의 심리는 대사와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

④ 제시된 부분에서는 인물의 등장과 퇴장이 두드러지지 않으며, 따라서 인물의 등장과 퇴장이 인물의 성격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⑤ 언어유희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06 촌장은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뿐이라는 파수꾼 '다'의 말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을 뿐, 주장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여 상대의 잘못을 드러내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촌장은 파수꾼 '다'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 구름이라 외칠테니."와 같이 거짓 약속을 하고 있다.

② 촌장은 파수꾼 '다'를 설득하기 위해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다."와 같이 말하며 거짓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③ 촌장은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끔찍한 상황을 가정하여 파수꾼 '다'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⑤ 촌장은 마을 사람들이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 단결함으로써 마을의 평화가 유지되었다고 말하며 거짓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07 촌장은 이리 떼로 인해 질서가 만들어졌고 마을이 안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08 촌장은 ㉠(양철 북)을 이용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09 ㉡는 촌장이 교활한 인물임을 드러내는 지시문으로,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순간적으로 교활한 표정을 짓는 연기를 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10 [A]와 같이 관객을 극에 참여시킴으로써 등장인물 수의 제약을 극복하고,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여 흥미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관객 스스로가 자신을 성찰해 보는 기회를 주고 있다.

11 파수꾼 '다'는 촌장에게 설득당해 그의 거짓말에 동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시거든 마을 광장에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수다쟁이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합니다."를 통해 촌장이 운반인에게 보복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파수꾼 '다'는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라고 외침으로써 촌장의 권력에 순응하는 인물로 변화하였다.

③ '파수꾼 다, 쓰러질 것 같은 걸음을 망루를 향해 걸어간다. 나가 근심스럽게 쫓아간다.'와 같은 지시문 등을 통해

파수꾼 '나'가 파수꾼 '다'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파수꾼 '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오지 않았니? 얼마나 큰 영광이냐."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가 외부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파수꾼 '다'는 촌장의 거짓말에 동조함으로써 파수꾼 '가, 나'와 마찬가지로 촌장에게 순응하며 살아가게 된다.

13 수다쟁이 운반인은 진실을 전파한 무고한 사람으로, 촌장은 이 사람을 처벌하려 하고 있다.

14 ㉢에서 촌장은 파수꾼 '다'가 거짓말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04 교술 갈래의 이해

우리학교 필수기출

p. 26

01 ④ **02** ③ **03** ③ **04** ① **05** 사람이란 본래 의지하고 볼 일 곳 없이 단지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이리저리 나다니는 존재라는 것을. **06** ⑤ **07** 의인화 **08** ④ **09** ② **10** ④ **11** 지금, 아니겠는가? **12** ② **13** ⑤ **14** 금강산 비로봉, 황해도 장연의 금모래 사장, 요동 들판 **15** ④ **16** ③

01 울음이 슬픔에서 나온다는 기존의 관념과는 다른 발상을 통해 요동 별판에서 한바탕 울고 싶다는 자신의 느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인물 간의 대화는 드러나지만, 이를 통해 바람직한 삶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자연과 인간의 대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요동 별판을 본 소감을 표현하고 있을 뿐, 공간의 역사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한나라 때 가의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으나,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2 글쓴이는 "통곡 소리는 천지간에 우레와 같이 지극한 감정에서 터져 나오고, 터져 나온 소리는 사리에 절실할 것이니 웃음소리와 뭐가 다르겠는가?"라고 하였다. 즉 울음과 웃음 모두 지극한 감정에서 터져 나온 것으로 사리에 절실한 것들이다.

03 감정의 표현이 어디에서든지 자유로워야 한다는 글쓴이의 생각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초상이 나서야 비로소 억지로 '아이고' 하는 등의 소리는 진정한 울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② 인간의 칠정이 모두 울음을 자야낸다고 하는 것에서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을 일곱 개로 구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정말 칠정에서 느껴서 나오는 지극하고 진실한 통곡 소리는 천지 사이에 억누르고 참고 억제하여 감히 아무 장소에서나 터져 나오지 못하는 법이네."라는 글쓴이의 말에서

글쓰기가 지극한 감정에서 터져 나온 울음을 쉽게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사람들이 태어나서 사정이나 형편이 이런 지극한 경우를 겪어 보지 못하고 칠정을 교묘하게 배치하여 슬픔에서 울음이 나온다고 짝을 맞추어 놓았다네.”라는 말로 보아 글쓰이는 슬픔과 울음을 짝 지어 놓은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정 진사는 광활한 요동 벌판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을 뿐,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05 글쓰이는 광활한 요동 벌판을 바라보며 사람이란 자연에 비해 미미한 존재임을 깨닫고 있다.

06 <보기>에서 박지원은 광활한 벌판을 마주하고 느낀 벽찬 감정과 발전된 청나라에 당도해서 느낀 시대적 감동을 울음(통곡)으로 표현하였다고 하였다.

07 ‘현신(現身)’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보임.’이라는 뜻으로 ‘백답이 현신’하였다는 것은 백답이 곧 보일 것이라는 의미이다. 백답을 의인화하여 백답이 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마중하는 듯이 표현하고 있다.

08 ‘그렇긴 하나’라는 말은 정 진사의 말에 어느 정도 수긍하는 것으로, 글쓴이 자신도 좋은 장관을 보고 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

09 비유를 활용하여 자신의 통곡이 갓난아이가 세상에 나와 터뜨리는 울음과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갓난아이의 울음이 넓은 곳에 처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한 울음이라는 글쓰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글쓰이의 가치관을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③ 우화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대화가 드러나 있으나 상대 주장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⑤ 과거 회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

10 갓난아이가 좁은 곳에 있다가 넓은 곳에 나와서 기뻐한다는 것은 창의적 사고에 해당된다. 갓난아이가 세상에 나와 백방으로 겪게 될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 먼저 운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11 글쓰이는 요동 벌판의 광활함을 보고 이를 하늘과 땅 끝이 마치 아교로 붙인 듯하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2 ‘어머니 태중’은 성리학 중심의 낙후한 조선의 현실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갓난아이’는 글쓴이 자신을 의미한다.

③ ‘참소리’는 글쓰이가 느끼는 감동의 표현, 즉 기쁨의 감정에서 나오는 울음이다.

④ ‘억눌렸던 정’은 표현하고 싶은 감정을 뜻한다.

⑤ ‘웅크리고 부대끼는 것’은 조선에서의 글쓰이를 형상화한 것이다.

13 글쓰이는 ‘갓난아이’가 태어나 처음 해와 달을 보고, 부모와 친척을 보고 그 만남을 즐거워하여 운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 태중의 캄캄하고 막히고 좁은 곳에 웅크리고 있다가 넓은 곳으로 나온 기쁨에 운다고 말하고 있다.

14 글쓰이는 요동 벌판을 보고 한바탕 울기 좋은 장소라고 하였으며, 금강산 비로봉과 황해도 장연의 금모래사장도 한바탕 울 장소가 된다고 하였다.

15 ㉔는 글쓰이의 말에 의아함을 느끼는 정 진사의 물음이고, ㉕는 글쓰이의 말에 동의하며 정 진사가 새롭게 던지는 질문이다

16 교술 갈래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글쓰이의 경험과 사색을 서술하여 독자에게 전달하는 문학이다.

오답 풀이 ①, ② 극 갈래에 대한 설명이다.

④ 서사 갈래와 극 갈래에 대한 설명이다.

⑤ 서정 갈래에 대한 설명이다.

대단원 **최종실전** 1회

p. 30

01 ② 02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 가마니 한 장 덮어 주는 사람이 없어 다시 얼어 죽는 동사자 03 ⑤ 04 ② 05 포도는 ‘나’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황수건의 마음을 의미한다. 06 ③ 07 ⑤ 08 ③ 09 ③ 10 황수건은 시학관이 왔을 때 종 치는 것도 잊어버리고, 시학관 앞에서 자꾸 일본말을 연습했기 때문에 급사에서 쫓겨났습니다. 11 ④ 12 황수건은 아내가 도망칠 것이라며 자신을 놀리는 이야기에 종 치는 일을 엉망으로 하고 집에 갈 정도로 남의 말에 잘 속는 천진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13 ④ 14 보조 배달부 자리를 잃게 된 황수건의 처지를 알고 가슴 아파하고 있다. 15 ① 16 ② 17 ⑤ 18 도끼 19 영광을 결승에 올려 보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돈 봉투를 받았던 일한이 돈 봉투를 바닥에 던졌다는 것은 일한이 물질적인 것의 유혹을 뿌리쳤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20 ③ 21 ⑤ 22 ① 23 ⑥: 우화적, ⑥: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수단(권력 유지를 위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수단) 24 황수건에 대한 호의와 긍정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25 ④ 26 ② 27 ⑤ 28 태복은 백답이 보이기 시작한 것을 ‘백답이 현신’하였다고 의인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요동에 도착하여 들뜬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29 ③ 30 ②

01 (가)에 따르면 생각과 감정을 색채와 형태의 형식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미술에 해당한다. 반면 시는 문학의 한 갈래이므로 언어라는 형식으로 생각이나 감정을 형상화한다.

02 이 시에서 ‘할머니’와 ‘동사자’는 소외된 사람들로서, 할머니는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고, 동사자는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아 다시 얼어 죽는다고 표현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2명의 대상을 각각 처한 상황과 함께 제시하여 서술했을 때	3
2명의 대상은 제시하였으나, 각 대상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	1

03 (나)는 ‘기쁨’과 ‘슬픔’이라는 시어의 대비를 통해, <보기>는 ‘햇빛’과 ‘그늘’이라는 시어의 대비를 통해 대상에 대한 애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나는 이제 너에게도 ~을 주겠다.’라는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보기>는 ‘나는 ~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보기>에서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와 같이 이중 부정을 사용하여 강한 긍정의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③ (나)와 <보기> 모두 ‘나’라는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④ <보기>에서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설의적 의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04 황수건이 훔쳐 온 포도를 맛보는 ‘나’의 모습에서 황수건을 향한 ‘나’의 연민과 애정을 느낄 수 있으며, 이 글에서 ‘나’의 결여된 윤리성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05 황수건은 자신에게 참외 장사를 하라고 돈을 준 ‘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포도를 훔쳐왔다.

채점 기준	배점
‘포도’에 담긴 의미를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도록 서술했을 때	3
‘포도’의 의미는 제시하였으나,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지 않을 때	1

06 [C]의 ‘봄눈’은 보리밭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여 싹을 틔우는 존재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감싸는 존재를 뜻한다. 따라서 ‘추위’의 이미지로 볼 수 없다.

07 ㉠(담배)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황수건의 비극적 심리를 드러내는 소재로, 황수건의 친진한 성격을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8 (가)의 서술자는 작품 속 관찰자로서 주인공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는 한편, (나)의 서술자는 작품 밖에서 사건의 모든 것을 알고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서술자가 이야기 속의 ‘나’이고, (나)는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 존재한다.

② (가)는 서술자가 관찰자가 되어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 (나)는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 위치하고 있다.

④ (가)는 서술자가 체험한 일을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나)는 전지적 서술자가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⑤ (가)는 1인칭 서술자가 제한적 위치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고, (나)는 서술자가 전지적 위치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09 평국은 천자에게 자신이 남장을 해야 했던 이유를 밝히고, 자신이 천자를 속인 것에 대한 잘못을 받고 있는 것이지, 도움을 받으려 한 것은 아니다.

10 황수건은 종 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삼산학교 급사에서 쫓겨났다.

채점 기준	배점
황수건과 관련된 일화를 예로 들어 동네 사람의 답을 서술했을 때	4
동네 사람의 답은 서술하였으나, 황수건과 관련된 일화를 예로 제시하지 않았을 때	2

11 ‘나’는 황수건이 어디에 사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지만, 황수건이 신문 배달부에서 쫓겨났을 때 마음 아파할 정도로 황수건에게 애정을 지니고 있다.

12 <보기>에는 어느 선생이 장난으로 한 말을 들은 황수건이 아내가 도망칠 것을 걱정하여 집에 빨리 가기 위해 수업 중을 당겨서 쳤다는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이를 통해 황수건이 남의 말에 잘 속는 친진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황수건의 성격을 서술했을 때	4
황수건의 성격을 서술하였으나,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활용하지 않았을 때	2

13 평국이 어의에게 진맥을 받고 난 뒤 여자임이 밝혀지지만, 천자가 은혜를 베풀어 장수의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았다.

14 ‘나’는 황수건이 보조 배달부 자리를 잃게 되자 이를 섭섭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황수건을 용납하지 않는 세상의 야박함을 원망하기도 한다.

15 (가)는 희곡이고, (나)는 시나리오이다. (가)와 (나)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

16 (가)에서 촌장은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라며 이리 떼가 허상인 것을 인정하고 있다.

17 <보기>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은 촌장의 거짓말 때문에 ‘없는 걸’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촌장은 ‘없는 걸’ 좀 두려워하는 것이 마을의 질서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18 도끼는 촌장이 진실을 밝히려는 파수꾼 ‘디’를 협박하기 위해 끌어들이는 소재이다.

19 앞부분의 줄거리와 일한의 대사를 통해 돈 봉투는 일한이 구 상무에게 협조하는 대가로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던지는 것은 더 이상 구 상무에게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의 의미와 돈을 받은 것의 의미를 대비하여 서술했을 때	4
㉠의 의미는 서술하였으나, 돈을 받은 것의 의미를 대비하지 않았을 때	2

- 20 구 상무는 일한이 계속해서 영광이를 옹호하는 것이 못마땅하여 그에게 쓰아붙이며 말했을 것이고, 일한은 기자들이 있는 데 가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을 것이다.
- 21 파수꾼 '다'는 촌장에게 설득되어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라고 외치고 있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파수꾼 '다'를 권력에 굴복하고 마는 나약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 22 (나)에서 파수꾼 '다'는 촌장의 거짓을 폭로하지 못하고 결국 그의 거짓에 동참하고 있다.
- 23 이 작품은 정치 현실을 직접적으로 비판할 수 없는 당시의 시대 상황에 따라 우화적 기법을 차용하였다. 이 작품에서 '이리 떼'는 촌장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낸 가상의 적으로, 촌장은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 24 '나'는 황수건이 원배달이 될 모습을 진실로 기대하며 기뻐하고 있다
- 25 ㉠은 음향 효과를 통해 파수꾼 '다'의 암울한 정서(㉡)와 진실이 왜곡된 사회의 어두운 분위기(㉢)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 26 (가)는 '통곡 소리는 천지간에 ~ 다르겠는가?'와 '어찌 사람들이 ~ 앓을 수 있겠는가?'라는 설의적 의문을 통해, (나)는 마지막 문장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설의적 의문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 (나) 모두 역설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가)의 '백담이 현신하였기에', (나)의 '그 밭의 채소들처럼 할아버지의 밭소리를 기다리게 되었다.'에 대상을 의인화한 표현이 쓰였지만 이를 통해 대상과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⑤ (가), (나) 모두 인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27 (나)에서 글쓴이는 불편한 몸으로 텃밭에 물을 주러 다니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생명을 가꾸는 일의 가치를 깨닫고 있지만 이를 통해 진정한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다.
- 28 태복은 들뜬 심정에 백담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의 의미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인물의 심정을 서술했을 때	4
㉠의 의미나 표현 방법 중 하나만을 활용하여 인물의 심정을 서술했을 때	2

- 29 한나라 가의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지만, 가의가 적당한 통곡의 자리를 찾지 못해 울음을 참다가 갑자기 울부짖었다고 했을 뿐, 이 울음이 기쁨에서 비롯됐거나 이를 통해 울음이 기쁨에서 비롯된다는 사고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 30 '반통의 물'은 생명체를 키우기 위한 '할아버지'의 수고를 의미한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흘리는 물로 인해 더 많이 길을 오고 갔다. 즉, '반통의 물'이지만 할아버지는 자신의 수고를 통해 텃밭에 충분한 물을 공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단원 **최종실전 2회**

01 ㉠ 02 ㉢ 03 ㉢ 04 ㉠ 05 (어머니) 태중 06 ㉠은 약자에게는 고통을, 강자에게는 기쁨을 주는 존재이고, ㉡은 약자를 감싸는 존재이다. 07 ㉠ 08 ㉣ 09 ㉠ 10 ㉣ 11 ㉠에서는 황수건의 영똥한 말에 맞장구를 쳐 주고, ㉡에서는 황수건의 잘못된 생각을 반박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일러 주려 온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나'는 황수건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극의 초반에 파수꾼 '다'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했지만, ㉢에서는 이리 떼가 몰려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즉 ㉢는 파수꾼 '다'가 촌장의 회유에 넘어가 그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음을 보여 준다. 13 ㉢ 14 ㉠ 15 ㉠ 16 ㉣ 17 ㉢ 18 ㉣ 19 처음 오디션에 참가했을 때는 학력을 위조했을 정도로 성공하기를 원했으나, ㉥에서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영광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20 ㉢ 21 ㉣ 22 ㉠ 23 황수건이 평소에는 피우지 않던 담배를 피우며,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에서 삶에 지친 황수건의 아픔과 슬픔을 느낄 수 있다. 24 ㉠ 25 ㉠ 26 ㉠ 27 ㉣ 28 ㉠

- 01 (가)는 슬픔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기쁨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갓난아이의 울음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른 창의적 발상이 드러나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에는 굴곡을 겪는 너, 동사자를 외면한 너와 같이 '너'가 행한 유사한 사례들이 제시되어 있지만, (나)에는 유사한 사례가 드러나지 않는다.
 ② (가), (나) 모두 색채어를 활용하고 있지 않고, 대상의 변화 과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③ (가)에서는 기쁨과 슬픔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나'와 '너'로 구체화하여 표현하고 있으나, (나)에는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가), (나) 모두 대상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고 있지 않다.
- 02 슬픔과 기쁨을 의인화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 ㉠, '-겠다'라는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슬픔과 기쁨이라는 대립적인 시어를 통해 화자가 바라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형상화하고 있다(㉢).
- 03 (나)는 갓난아이가 어머니 태중에서 나와 우는 것이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나온 기쁨 때문이라고 하며, 글쓴이 또한 좁은 조선에서 나와 광활한 별판을

본 기쁨으로 인해 통곡할 만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04 '나'는 '너(기쁨)'의 이기적이고 무관심한 모습을 지적하며 슬픔과 기다림을 가르쳐 주고자 하였다. '너'의 긍정적인 모습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 05 글쓴이는 갓난아이의 울음을 통해 조선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 태중'은 비좁고 폐쇄된 조선 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06 '함박눈을 멈추겠다.'라는 것에서 함박눈은 약자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봄눈들을 데리고 /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오겠다'는 것에서 봄눈은 약자를 감싸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과 ㉡을 대비하여 상징적 의미를 서술했을 때	4
㉠과 ㉡의 상징적 의미를 서술했으나, 그 의미가 대비되지 않을 때	2

- 07 (가)는 '그(황수건)'와 '나'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나)는 파수꾼 '나', '다'와 촌장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08 황수건이 삼산학교 앞에 가져다 둔 돌멩이를 치운 것이 새로 온 급사라는 것은 황수건의 추측일 뿐이고, 실제로 돌멩이를 치운 사람이 누구인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 09 황수건이 삼산학교 급사 자리에서 쫓겨난 것은 그가 지능이 모자라고 어수룩해 엉뚱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황수건과 같이 모자라고 어수룩한 사람이 주변으로부터 소외당했을 당대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10 촌장은 식량 운반인에게 질문을 하여 편지를 보낸 것이 파수꾼 '다'임을 확인시키고 있지만, 파수꾼 '다'가 거짓말을 하게 하는 데 식량 운반인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미안합니다. 이번에 잡았더라면 그 껌질을 촌장님께 선사하고 싶었는데……."라는 파수꾼 '나'의 말에서 알 수 있다.
 ②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기회에 말이다. 넌 너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해야 한다."라는 파수꾼 '나'의 말에서 알 수 있다.
 ③ '파수꾼 다,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망루를 향해 걸어간다.', '파수꾼 다는 망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과 같은 지시문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씩은 앓는 병이겠지요."라는 촌장을 말에서 알 수 있다.
- 11 '나'는 삼산학교에 새로 온 급사와 싸움을 하기 전에 그의 힘을 알아보려는 황수건의 행동에 맞장구를 쳐

주고 있다. 또 근거도 없이 우두를 맞지 말라고 말하는 황수건에게 고맙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로 보아 '나'는 황수건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과 ㉡을 근거로 황수건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서술했을 때	4
황수건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서술했으나, ㉠과 ㉡을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2

- 12 파수꾼 '다'는 이리 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한다. 하지만 촌장의 협박과 회유에 굴복하여 결국 촌장이 원하는 대로 이리 떼가 나타났다고 외치게 된다. 이를 통해 파수꾼 '다'가 촌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음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인물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의 의미를 서술했을 때	4
㉢의 의미를 서술했으나, 인물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을 때	2

- 13 (가)에서 촌장은 파수꾼 '다'가 얻을 보상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14 파수꾼 '다'에게 '난폭하게' 말을 하는 모습은 촌장의 이면이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촌장의 정중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 15 (나)는 일한과 구 상무의 대화를 통해 다문화 가정 출신의 소년이 뮤지컬 주인공으로 캐스팅되는 것과 관련된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일한과 구 상무의 대화만 드러날 뿐 특정 인물의 독백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배우들의 대사와 연기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서술자가 따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④ 공간의 이동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영광의 오디션 결승 진출이라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일한과 구 상무의 반응을 제시하고 있으며, 두 인물은 동일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
- 16 구 상무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 편견을 지닌 인물로, 다문화 가정의 소년인 영광이 주인공이 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일한은 학력을 위조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② 일한은 영광을 탈락시키려는 구 상무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
 ③ 영광은 다문화 가정의 소년이지만, 뮤지컬이 어떤 내용인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⑤ 영광은 자신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인 것을 숨기지 않았다.